2011 신년음악회

2011.1.14(금)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부–지휘 : 금난새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2부
대중가수 특별공연

지휘 금난새 | 테너 나승서 | 정수라 | 조항조 | 남궁옥분 | BMK | 박은주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예매 : 엔티켓 1588-2341 www.enticket.com

주최 : 인천광역시　주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31~7　진행 : (주)월드기획 032)567-4075

B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

2011년엔
2011년의 태양이 떠오른다
새해 첫날 맞을 인천 해돋이 명소

힘내라, 연평도! 일어나라, 연평도!
연평도 지원대책 및 복구현황

Colorful Malaysia
하나되는 아시아

그 길에는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다
옥련동

JANUARY 2011 1

C

Contents

Good Morning Incheon January 2011 Vol.205

● **발행처**_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 **발행일**_2011년 1월 1일 ● **발행인**_인천광역시장 ● **편집인**_대변인 윤관석
● **편집장**_유동현(뉴미디어 팀장) twitter.com/ihappyou ● **취재**_편집위원 |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 김윤경 twitter.com/ice3333
● **사진**_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_62800000-84900-42-81 ● **편집디자인 · 인쇄**_성광디자인(주)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08

16

22

26

COVER STORY

2011년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인천공항은 1992년 11월 착공해 2001년 3월 개항했다.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영종도, 용유도 그리고 신불도를 이어서 만든 세계적인 공항이다. 2020년에는 여객 1억 명, 화물 700만t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교류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에 이른다. 미국 동부까지도 중간기착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이 커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 세계 공항이 1만개가 넘고 그 중에서 ACI(국제공항협의회)에 가입한 공항만도 1천700여 개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선진국 공항을 제치고 연거푸 다섯 번이나 1등을 차지했다. 위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04 **communication >** 소통과 화합
아름답던 소래포구를 그리며 外

06 **시장 신년사(요약)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07 **의장 신년사(요약) >**
'경청' '소통'으로 신묘년 열겠습니다

08 **뷰 포인트 >** 새해 첫날 맞을 인천 해돋이 명소
2011년엔 2011년의 태양이 떠오른다

12 **희망 인천 >** 연평도 지원 및 복구현황
힘내라, 연평도! 일어나라, 연평도!

16 **Enjoy Incheon >** 시간을 담은 박물관
선사부터 오늘까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20 **Special >** 송 시장, 박상원과 대담
인천을 사랑하는 '두 남자'가 만나다

22 **2014 인천AG >** 하나되는 아시아
Colorful Malaysia

26 **Old but New >** 옥련동
그 길에는'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다

30 **Focus >** 신묘년, 알아두면 편리한 인천생활
무한복지 무한행복, 셋째아부터 무상보육

34 **Culture News >**
2011 신년음악회 外

36 **당신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 소외계층 지원
따스한 집에 살며, 땀 흘려 일하는 행복

38 **시정 News >**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2014년 개통 外

42 **의정 News >**
시민과 소통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 外

46 **별난 물건, 별난 역사 >**
석유와 랑뿌

48 **외국인 컬럼 >**
영원히 기억할 이름, 인천

49 **모닝커피한잔 >**
새해 복이 소복소복

50 **Health Life >** 건강 백세
외과질환 물리치고 우리아이 튼튼하게

51 **World incheon >** 2010 세계전통의상 자선갈라쇼
한복에 핀 美, 세계를 사로잡다

52 **Info Box >**
연수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外

56 **Spot the Difference >** 틀린그림찾기
강화평화전망대

57 **Reader's Photo >** 김치찰칵
30년 전, 그때 그 시절 外

58 **+Plus News >** 무상보육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셋째아 이상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아름답던 소래포구를 그리며

얼마 전에 모처럼 소래포구를 찾았습니다. 애잔한 분위기와 사람냄새 나는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예전의 기억으로 가끔 찾곤 했는데, 오랜만에 찾은 소래포구는 많이 달라졌더군요. 어수선한 공사 잔해들과 답답한 장벽으로 인해 그림 같던 풍경이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조건적인 개발과 편리한 생활만이 전부가 아닐 텐데…. 아름답던 소래포구가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 강미야 시흥시 대야동 |

반가운 고향소식 〈굿모닝인천〉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이곳에서 받아보는 〈굿모닝인천〉은 제게 있어 기대와 설렘, 추억과 향수, 고향소식, 고향사람, 고향냄새 그리고 그리움입니다. 제게 고향을 느끼게 해주어서 늘 감사합니다. 〈굿모닝인천〉 편집자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늘 평온하고 행복하며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김경수 강원도 원주시 |

인천에서의 소소한 일상이 바로 행복

내년이면 칠순이 되는 인천시민입니다. 〈굿모닝인천〉이 처음 발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월 받아보고 있지요. 한번도 잊지 않고 인천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에서부터 하나 둘 쌓인다고 합니다. 어둡고 찌든 한 해 불살라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

| 노인근 남동구 구월2동 |

연평도 주민들 힘내요~

요즘 연평도 사건으로 인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서해5도가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점차 연평도가 제 모습을 되찾고 주민이 희망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연평도 주민을 비롯한 서해5도 주민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합니다.

| 노경민 서울시 봉천동 |

새롭게 다가 온 인천

인천시민은 아니지만 우연히 전철에서 〈굿모닝인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인천에 관심이 많은지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사실 인천하면 가볍게 주말여행을 가기 좋은 곳으로 여겼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바다와 독특한 풍경이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책을 통해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은 괄목할 만합니다. 인천 파이팅입니다.

| 홍인표 성남시 정자동 |

2010년을 추억하며

흔한 표현이지만 지난 한 해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세계에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던 중요한 해였고 동시에 북한이 연평도를 도발했던 슬픈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아공 월드컵, 밴쿠버 동계올림픽,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거대한 스포츠행사가 있었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되었으며 천안함 침몰사건 등 즐겁고 우울한 사건들이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 인천이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고 그만큼 인천의 책임감과 위상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을 맞아 발전과 과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천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잘 해내길 기원합니다.

| 정영현 중구 전동 |

시민에 도움되는 자전거도로가 절실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기는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데는 모두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자전거도로로 인해 사실상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문학경기장 앞에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길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교통정체가 되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인도와 자전거 길을 같이 내어도 충분한데,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조성하여 너무 혼잡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 유민지 연수구 동춘동 |

몸은 멀어졌지만 늘 그리워

예전에 인천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고향에서 멀어 졌지만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늘 그립고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소식을 접하며 향수를 달래고 또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인천에 근거를 둔 사람은 물론 타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인천을 널리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멋과 매력이 만방에 펼쳐지길~ 내 고향 인천, 파이팅~

| 신현아 서울시 상수동 |

눈이 와도 걱정 없도록 해주세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이 온다는 즐거움보다 교통정체 등의 불편함이 먼저 생각납니다. 언젠가는 새벽에 눈이 펑펑 내려 자고 일어나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더군요.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끌고 나가보니 일부 구간 도로사정이 불편하였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눈을 치우느라 시와 군・구청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눈이 와도 걱정 없도록 정비에 신경 써 잘 해주세요.

| 김은수 부평구 산곡동 |

@Bulloger

인천시 생활체육회 예산전액삭감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싶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 시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생활체육 예산은 6억 3천 4백만원이 편성(시장기,전국규모 종목별 대회 참가 등)되었으며, 향후에도 동호인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 체육진흥과)

@Bulloger

인천시립박물관 연구원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인천 대표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편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매년 시민 12만명이 방문해주어 시민께 감사할 뿐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라도 부탁드립니다.

➔ 6-1, 65-1, 8, 16, 111-2, 740, 908, 9200(광역), 9000-1(광역), 3001(광역) 버스 인근 정류소에서 정차하고 있으며, 도보 가능하며 송도유원지(도로교통공단)에서 520m로 약8분, 축현초 331m로 약5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68m 로 약2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과)

@Bulloger

인천시는 NIP(기초백신접종무료사업)계획이 없는지요?
추진하는 구가 있는 걸로는 아는 데 시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정창근 (당시 만 40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5년 12월 27일(화)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신체 특징 정실질환, 간질환, 우측 다리를 절음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해5도는 남북한 평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새로운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남북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5도에 해양평화공원, 평화의 섬을 만들어 국제평화해역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계획하는 것은 향후 '경제수도 인천'의 기초를 닦는 것이며,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을 꿈꾸는 우리 인천의 외자유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천이 평화와 민족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교육받고 인격자로 성장하여 직업을 갖는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천을 '청년 일자리 메카'로 만드는 일이며 그 중심은 '제물포 벤처타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국 하위권 수준을 맴도는 인천의 초중고 학력 향상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닦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전면 무상급식도 점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보육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4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와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00%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보육정책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아시아에는 40여 개의 언어와 17개의 서로 다른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하여 인천 브랜드 가치를 널리 과시하겠지만,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이상(理想)을 아시아인 모두의 가슴에 흐르게 할것입니다.

저는 인천시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시민 여러분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철로 출근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를 같이 호흡하고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소통의 시정을 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정책위원회'와 '시민원로회의'를 구성하여 남녀노소, 여·야, 진보·보수 등을 총망라한 각 계각층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시민소통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일방소통이 아닌 상호작용의 소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인천으로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남북 평화와 화해의 교두보로서의 인천의 꿈을 이루려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있어야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인천의 원대한 꿈을 위하여 다 함께 전진합시다!

2011년 새해아침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경청' '소통'으로 신묘년 열겠습니다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고, 이제 성년을 맞는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모토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곧은 잣대로 시 집행부를 슬기롭게 견제하고 또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와 조화·상생하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문화와 현장 중심의 시민대화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스스로 연구하는 문화를 확립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쓰는 고품격 의정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잘 대변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듣는 경청(敬聽)의 자세와 마음까지 하나되는 소통(疏通)의 모습으로 더 나은 인천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인천시와 하나되어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소수의 의견까지 거를 수 있는 그물망 의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의정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정책이 수정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 이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절 시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개발로 인해 시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은 견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는 우리 모두가 자신감과 인내를 갖고 착실히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갈 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앞에서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제6대 의회를 지켜봐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새해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기선

2011년엔

2011년의 태양이 떠오른다

연수구 청량산 일출

영종도 백운산

강화 고려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했지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은 아무래도 범상치 않다. 그래서 매서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뜨는 태양을 영접하기 위해 잠도 설쳐가면서 길을 나선다. 장대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노라면 그 뜨겁고 힘찬 기운을 받아 막막하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신년엔 운수대통 할 것 같은 기대감이 마구마구 솟구친다. 새해아침, 시민들에게 힘찬 에너지와 행운을 선사할 해돋이 명소에 가보자.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계양구 계양산

청량산…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셔

산의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이름 붙여진 청량산. 송도 유원지를 감싸며 옥련동, 청학동, 송도동 등에 걸쳐있다. 정상높이 172m. 부담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산행 장소다. 여기에 황홀한 일출을 볼 수 있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시립박물관 뒷길에서 시작하는 등산로는 계단과 암석으로 이뤄져 초입 부분에선 조금 숨이 가쁘기도 하지만 금새 수월하게 정상에 오른다.

청량산의 일출 포인트는 연수동 푸르지오아파트 방향이다.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을 사이로 해가 떠올라 송도전체를 조망하면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새빨갛다 못해 시뻘건 태양은 보일 듯 말 듯 일출을 기다리는 이들의 애간장을 태운다. 해는 오랜시간 추위에 떨면서 자신을 기다려 준 사람에게 보답이라도 하 듯 멋진 일출을 보여준다. 송도 앞바다와 연수구 방향으로 붉은 해가 넘실거리며 떠오른다.

어둠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힘차게 솟는 태양은 눈이 부시다. 또 에너지가 충만하다. 사람들에게 그 찬란한 기와 에너지를 나눠주며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듯 하다. 청량산에서 일출은 정상부근 팔각정과 송전탑 옆 전망대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청량산의 주요 등산코스는 시립박물관 뒷길 말고도 송도동 홍륜사, 옥련동 영남아파트, 청학동 성호아파트, 옥련동 호불사 등에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오르고 내려갈 수 있도록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다.

영종도 백운산…인천대교 걸치며 올라오는 황홀한 장관

영종도의 명산 백운산. 정상에는 인천대교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출 방향은 송도와 월미도 부근. 높이 255m의 그리높지 않은 산에서 인천바다를 가득 품은 채 인천대교의 위용을 환히 비치며 떠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기 전 이미 구름은 붉은 기운을 펼치면서 태양의 등장을 암시한다. 검푸른 바다위로 붉은 태양이 조금씩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볼과 코끝은 추위의 절정을 향해 달리지만 빨리 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더 조바심을 친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제 모습을 보인 태양은 점점 더 커진 모습을 속도감 있게 보여준다. 잠시 구름 뒤로 몸을 감추었다 다시 구름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백운산은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를 타고 시원스레 내달릴 수 있고,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내려 15분 정도 걸으면 하늘고등학교 옆으로 조성된 등산로에 다다른다.

등산로 초입부터 향긋한 솔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등산로 주변으로 쭉쭉뻗은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정상까지는 20~30분 정도 걸으면 충분하다.

주요 등산로는 영종주민센터, 운서초등학교, 하늘고등학교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다. 능선을 타고 왕복을 해도 1시간 정도면 족하다.

일출을 본 후 천년고찰 용궁사를 둘러봐도 좋다. 신라 문무왕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편액은 홍선대원군은 쓴 것으로 전해진다. 절 마당앞에는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수령이 1천년이 넘는 이 나무들은 할아버지나무, 할머니나무라는 애칭이 붙어 있다.

가는길 인천대교 건너 영종도로 들어가 공사 중인 하늘고등학교 옆길 등산로. 공항철도 운서역 하차, 하늘고등학교 옆 등산로.

계양산… 도심 품으며 당당히 세상을 비쳐

인천의 진산이자 도심에서 가장 높은 산, 계양산. 높이 394m다. 경인여대 옆으로 조성된 등산로에서 시작한 산행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른다. 정상에선 계양구 일대는 물론 서구, 부천, 김포, 서울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다.

일출은 저 멀리 보이는 서울쪽 관악산 방향에서 떠오른다. 바다가 아닌 산과 도심을 품은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색다른 묘미다. 해맞이를 할 때 산 정상의 추위는 최고조에 달한다. 오늘 뜨긴 뜨는 걸까. 발도 시리고, 맹추위에 몸이 오들오들 떨리지만 해가 올라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나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감동만 남는다. 붉은 태양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김없이 보답이라도 하듯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다.

산행은 경인여대 옆 등산로에서 시작하여 팔각정을 거쳐 정상에 오른 후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타고 계산약수를 거쳐 계양문화회관으로 내려가거나 징맹이고개 쪽으로 능선을 탈 수 있다. 어느 코스든지 2시간쯤 걸린다.

산 주변의 시설 및 문화유적지로는 계양문화회관, 경인여자대학교, 백용사. 성불사, 연무정 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남단에는 1986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계양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계양산성과 봉월사터, 봉화대 유적지와 고려시대의 학자 이규보가 거처하던 자오당터와 초정지가 위치한다.

가는길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5, 6번 출구

강화 고려산…사찰 배경, 넉넉하고 온화한 빛 표출

강화도의 5대 명산 중 하나다. 고려산의 일출은 강화시내→강화대교→염하강→김포→한강→63빌딩을 앞으로 서울의 삼각산이 병풍처럼 쳐진 가운데 장엄하게 떠오른다. 고려산 일출의 진미는 청련사에서 고려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인 9부능선 전망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 적석사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1999년부터 매년 해돋이행사를 하고 있다. 적석사 낙조대에서 보는 일출방향은 내륙쪽인 서울방향에서 떠오른다. 적석사에서 낙조대까지는 15분 정도 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낙조봉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고려산에는 백련사와 청련사, 적석사 3개 사찰이 남아있다. 정상 북쪽에 백련사, 동쪽에 청련사, 그리고 서쪽 저 멀리 낙조봉 아래에 적석사가 있다. 이 3개 사찰은 곧 고려산 산행의 기점구실을 하고 있다.

가는길 강화도로 가서 군내버스 이용(15분 소요)
청련사 군내버스 이용→국화리 저수지위에서 하차 후 10분 도보
적석사 강화대교→강화읍지나 서문삼거리에서 좌회전→국화저수지→고비고개→적석사 입구(15분 소요)

tip 해돋이 볼때 챙겨야 할 것들

1월은 우리나라 겨울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과 찬 기온이 온 몸을 꽁꽁얼게 한다. 자칫 방한용품을 제대로 안챙긴 채 일출을 볼 경우 감기로 인한 고열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극한의 추위 예방…방한복 꼭 챙겨야

추위를 덜 느끼면서 일출을 보려면 든든한 옷차림과 모자, 장갑, 귀마개, 목도리 등 방한복은 필수다. 해뜨기 전의 시간이 제일 춥기 때문에 찬란한 일출을 보려다 자칫 감기로 고생할 수도 있다. 보온병에 따듯한 물을 담아가는 것도 추위를 피하면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시간은 넉넉하게

일출을 여유롭게 보고 싶다면 가고자 하는 산의 일출시간을 확인하고 여유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다. 1월 1일은 일출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 밀리는 만큼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일출시간은 보통 7시 20~30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조금일찍 도착해서 일출이 잘 보이는 좋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카메라 준비는 필수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싶다면 카메라는 필수.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감격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사진은 살아가면서 지치고, 시시때때로 힘든시간을 보낼 때 다시 힘을 주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힘내라, 연평도! 일어나라, 연평도!

아, 연평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도발로 아름답던 연평도가 비탄에 잠겼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여전히 바다는 힘차게 굽이치고 태양은 뜨겁게 떠오르기에. 연평도 주민이 힘차게 새 희망을 열 수 있도록 280만 인천시민이 한마음으로 힘 모아 응원한다. "힘내라! 연평도! 다시 일어나라! 연평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하장원 시 대변인실,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한마음으로 연평도 지원에 총력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잔잔하던 연평도 바다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북한이 연평도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이 가운데 수 발이 주민이 살고 있는 민가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름답던 섬이 폐허가 되고 우리 아들과 이웃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현실이지만 정부와 우리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신속히 대응했다.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조윤길 옹진군수, 시 관계자 등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당일 연평도로 가 현지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또 군관계자 및 현지주민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시, 옹진군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루빨리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우리시는 연평도 피해상황을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평도 피격이 있던 달 30일 옹진군에 예비비 15억과 재정보전금 3억8천만원 등 총 18억8천 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옹진군도 예비비 17억을 지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가 예비비 지원 등 연평도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0일 정부가 피해복구비 309억원을 우리시에 지원했다. 우리시와 옹진군은 현지사정을 고려해 세부계획을 세운 후 이들 예비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발 빠르게 나섰다.

고향집만 못해도, 맘 편히 머물도록

지난해 12월 19일 연평도를 떠나 낯선 곳에서 임시생활을 하던 주민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생겼다. 주민 800여 명이 찜질방을 떠나 김포 양곡지구의 LH아파트로 임시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아무리 새 아파트가 좋아도 고향집만 못하겠지만 주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히 뉘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시와 주민 간의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거주기간은 2개월이며 앞으로 주민 1천46명이 더 입주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생활안정지

원금을 성인은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 지급하고, 18세 미만의 주민은 75만원씩 2회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과 연평도에 남아 있는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파트 입주여부를 가리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아파트 입주 시 들어가는 비용(성인 100만원, 18세 미만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옹진군에서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곡지구에서 연안부두까지 셔틀버스와 어린이집 등을 운영키로 했다. 그간 주민이 머물렀던 찜질방 사용료는 아파트 입주 전까지 실제사용분을 기준으로 옹진군이 일괄 지급하고, 입주 후에는 이용자 본인이 개별 부담키로 했다.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다시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책도 세웠다. 학생들은 포격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인천영어마을에서 5박 6일간 심리치료와 놀이영어교육을 받고, 이후 영종도 운남초등학교에서 정상수업을 시작했다. 이들 아이들에게는 학교급식료가 전액 지원되고 수업료는 내년 1/4분기까지 감면된다

구슬땀 흘려,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연평도

시는 폭격에 무너져 내린 연평도가 본래의 모습을 찾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먼저 주민이 깨끗한 연평도에서 새 삶을 열 수 있도록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임시적환장을 마련해 피폭으로 인해 생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피폭으로 깨진 창과 문을 새로 다는 등 주택과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또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되고 고장난 시설은 철저히 보수해, 주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나무를 심고 산불잔재를 정리하며 피폭으로 회색빛 잿더미가 된 산림을 푸르게 조성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시는 화장실, 샤워장, 냉난방시설 등을 갖춘 목조주택 39동을 지어 피폭으로 집을 잃은 주민이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평도 주민이 섬에서 다시 삶을 일굴 수 있도록 어업손실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꽃게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폭격지 안보마을로 보존, 평화마을에서 새 삶

북한의 도발로 한순간에 평화가 깨져버린 연평도. 그날의 기억은 잊지 않되 슬픔은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시는 먼저 150억원을 들여 기존 마을을 정비해 '안보마을'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주택, 도로, 녹지 등을 정비하고 안보전시관을 세울 방침이다. 그리고 집단피폭을 당한 지역이나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화마을'로 이주한다. 평화마을은 160억원을 들여 매립지 또는 마을 인근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억원을 들여 현대화된 시설의 주민대피시설을 만들고, 100억원을 들여 대피용 거주공간 '서해마을'을 조성한다. 서해마을은 연안부두 및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100세대 규모의 콘도 또는 공용거주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 연평도…. 아름다운 섬 연평도의 평화를 삼킨 그날의 빼아픈 기억은 가슴에 새기되, 슬픔은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땅 연평도에서 더 힘차고 희망차게 밝은 내일을 열어야 한다. "힘내라! 연평도! 다시 일어나라! 연평도!"

서해5도를 '평화의 섬'으로

서해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묶어 일컫는다. 우리 땅이지만 백령도가 서울에서 210킬로미터인 반면 평양까지 150킬로미터로, 북한과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서해5도는 북한의 수도권 접근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 만약 서해5도가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될 뿐 아니라 해상 경계선도 지금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와 선박운행이 사실상 마비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974년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서해5도 대책사업이 추진됐으며 199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5도를 보존·개발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우리시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자체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있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은 연평도 북 도발로 인한 서해5도 주민의 손실에 대한 지원, 연안여객선의 대형화와 운영비 지원, 아파트형 공동주택 신축비 지원 등이다. 시의 목소리가 전해져 서해5도의 특수한 여건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시행되길 기대한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대청도와 소청도 및 백령도를 방문,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설명하고 이곳 주민으로부터 건의 사항을 들었다. 송 시장은 주민과 만나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와 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전했다. 그리고 "서해5도는 긴장의 섬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 주민의 안정화 대책과 장기적인 서해5도 발전계획을 세워 사람이 찾아오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선사부터 오늘까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역사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오르다

검단선사박물관

기름진 평야를 품은 인천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그로인해 기나긴 역사가 절절히 배인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단·문학동·강화도 등에서 구석기시대의 자취가 묵은 먼지를 털고 세상의 빛을 보았으며, 강화도 · 대곡동 · 문학산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인천 서부북부 지역, 기나긴 세월 묵묵히 쌓인 역사가 베일을 벗은 것은 1999년 토지정리 사업을 하면서부터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터와 돌널무덤이 발견되고 땅 속에 묻혀 있던 선사시대 유물이 하나 둘 쏟아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땅 위에 검단선사박물관이 세워졌다. 박물관은 공사 과정에서 발굴한 유물 760여 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맡긴 유물 2천200여 점 등 선사유물 3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도토류·골각류·금속류·옥석유리류 등 다른 박물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다양하게 있으며 모두 진품이다. 특히 발굴한 집터와 돌널무덤을 복원해 전시하여 의미를 더 한다. 박물관을 나와 작은 나무계단을 오르면 선사공원이 나온다. 정상에는 청동기시대의 돌무덤 3기가 있다. 고대문명이 아득히 서려 있는 현장에서 역사와 함께 호흡한다. **문의** 440-6790

여기도 추천! 강화역사박물관

세계문화유산인 강화지석묘가 있는 고인돌공원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강화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강화역사박물관이 있다. 대표 유물로 교산리에서 출토한 구석기시대의 주먹찌르개, 청동기시대에 흙으로 만든 그물추와 돌칼, 화살촉 등이 있다. 선사시대 이후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 ·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른 강화 유물을 볼 수 있다. **문의** 934-7887

古代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와 함께 인천이 걸어 온 발자취는 모두 의미 깊다.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새 세상을 연 개항기,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인 70년대 산업기까지. 그로인해 인천의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를 아우른다. 인천의 박물관이 곧 타임머신. 기나긴 세월 묵묵히 쌓인 역사의 편린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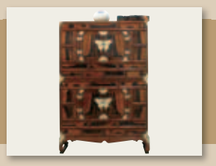
자기(瓷器)에 비춘 고려 · 조선시대

녹청자도요지사료관 · 애보박물관

화려한 것은 보는 이를 한눈에 사로잡지만, 드러나지 않는 소박한 아름다움은 가슴에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녹청자가 그렇다. 둔탁한 녹갈색 빛에 꾸밈없이 거칠고 투박하지만 마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다.

검안동에는 10~11세기 고려시대에 녹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 인천녹청자도요지(국가사적 211호)가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뜻을 기리어 녹청자도요지사료관을 확장 개관했다. 사료관은 가마터에서 발굴한 녹청자 파편 20여 조각과 녹청자 복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좀더 다양한 녹청자를 볼 수 없어 아쉽지만, 고려시대 서민의 애환과 질박한 삶의 향기는 고스란히 전해진다. 곁에는 녹청자 · 현대도예공모전에서 수상한 현대공예작품 수십점이 있다. 시대에 따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법은 다르지만 작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한민족의 정서는 한결같다. **문의** 560-4564

애보박물관으로 가면 시대는 고려를 넘어 조선에 이른다. 애보박물관은 '愛寶, 사랑스러운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주로 조선시대의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시실 애보관에는 '민화가 있는 해주항아리와 목가구'전이 열리고 있다. 해주항아리는 해주에서 민화풍의 그림을 새겨 넣어 만든 항아리로 주로 조선 말기에 사용했다. 도공이 가식과 허위를 훌훌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손놀림으로 빚어내어 꾸미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다리를 건너 구암관으로 가면 시대와 종류를 넘나드는 다양한 유물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고려시대 청동공예품을 비롯해 조선시대 백자, 석공예품, 목공예품 등 유물 하나하나에 선조의 숨결이 가득하다. **문의** 466-3181, 2



近世

개항, 새 세상이 열리다

인천개항박물관

1883년 1월, 인천항이 열렸다. 서양인과 일본인, 중국인이 몰려들고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거리에 물결을 이루었다. 각국 영사관과 근대식 은행, 극장, 카페, 공원 등도 생겨났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중구 중앙동 거리는 당시 일본제1은행 · 제18은행 · 제58은행 등이 모여 금융가를 이루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을 비롯한 서구식 건물이 들어선 근대화의 발상지였다. 개항박물관은 일본제1은행을 개조해 만들었다. 일본제1은행은 르네상스풍 석조건물 자체가 개항장 인천을 보여주는 유물로, 각계의 자문을 구해 근대건축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지어 의미를 더 한다. 박물관은 구에서 수집한 유물과 자료 321종 669점 가운데, 인천을 통해 처음 들어오거나 인천에서 태어난 근대 관련 유물을 선별해 전시하고 있다. 근대에 사용하던 우표와 주화, 경인전철 관련 유물 등 대부분 당시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것들이다. 주요 유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함 광제호에 휘날리던 태극기를 비롯해 모스식 전신기와 벽걸이형 자석식 전화기 등이 있다.

개항기 인천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 놓은 인천개항박물관. 오늘 이 곳에서, 슬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문의** 760-7508

여기도 추천! 인천근대박물관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은 지금은 눈앞에서 사라진 진귀한 근대 생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장면이 탄생한 중국 요리집 공화춘에서 사용한 물품, 구한말 영국에서 인천영사관에 보낸 장식장, 인천에서 처음 불을 밝힌 성냥 등. 박물관을 빼곡히 채운 생활자료 1천 여 점 모두가 굽이굽이 기나긴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문의** 764-1988

1902년, 이민의 닻을 올리다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19세기 후반,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들이 조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밟았던 한국 땅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이러한 뜻을 기리고 한국 이민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현재 4천400여 점의 이민사 관련 유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품은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이 사용하던 주방기기, 가구 등 생활용품과 사진 등으로 주로 미국,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에서 수집했다. 대표 유물로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이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던 번호표 방고와 대한제국 유민원에서 발행한 집조(여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하던 수레, 칼, 가위 등의 작업용 공구를 볼 수 있다. 멀리 이국땅에서 치열하게 삶을 개척했던 선조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느껴진다.

우리민족이 미지의 세계로 첫 이민을 떠난 지 어언 한 세기가 넘었다. 오늘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민 1세대의 정신을 기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문의** 440-4710, 1

6, 70년대 그리운 그때 그 시절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기대며 옹기종기 모여 살던, 동구 송현동 '수도국산'. 이 곳은 한국전쟁 이후 고향을 잃은 피난민이 모이고, 6, 70년대 산업화로 인천에 공장지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달동네를 이루었다. 때론 가난이 뼈아프게 느껴졌지만 고단한 삶 속에도 희망은 있기에, 수도국산 사람들은 웃을 수 있었다.

지금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에,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수도국산의 옛 생활상과 실존인물을 재현해 전시하고 있다. 동네아이들이 용돈이 생기면 달려가던 구멍가게, 아버지를 말끔한 신사로 만들어주던 이발소,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던 연탄가게. 모두 동네에 있던 그대로다. 세상사가 빼곡히 적힌 일기장, 낡았지만 어머니가 깨끗하게 다려주시던 교복 등 전시한 물건도 당시 살았던 주민에게서 기증받았다. 이렇듯 옛 사람의 손때가 묻고 세월의 흔적이 배인 생활사 유물을 보존, 전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박물관사에 있어 상당히 의미 깊다.

오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가난하지만 서로를 기대며 열심히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려본다. **문의** 770-6131

물건으로 읽는 역사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시대 물건을 보면 당시 역사를 알 수 있다.
각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시대별 주요 유물을 통해 역사와 함께 호흡한다.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인천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에너지가 충분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두 남자'가 만나다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닮은 두 남자가 만났다. 송영길 시장과 탤런트 박상원이 문화일보에서 발행하는 아침신문 'AM7'의 주선으로 대담을 진행한 것이다. '인천'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이어져서 일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진솔하게 인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소풍가던 송도가 글로벌도시로

사람이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면 자신이 걸어 온 길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세상을 다 품을 듯 당당하면서도 넉넉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두 남자가 만났다. 송영길 시장과 탤런트 박상원이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녀서 인천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늦었지만 민선5기 시장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브라운관에서 강렬한 카리스마와 인간미 넘치는 매력을 넘나들며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 박상원. 인천남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인천과 인연이 깊다. 인천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생에서 영혼이 가장 맑은 시기를 인천에서 보내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다. 그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인천의 섬과 바다에 꿈과 미래를 풀어내기 위해 시도에 개인작업실을 짓고 있다.

'인천'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이어져서 일까.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향기와 부드럽지만 힘 있는 카리스마가 서로 닮아서일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서로를 반기며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의 인천은 예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인천하면 소풍가던 송도를 먼저 떠올렸는데 지금은 크게 달라졌어요. 천지개벽한 인천을 이끌어 가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찾던 송도유원지로 기억되는 인천. 하지만 인천은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며, 머릿속으로 그리던 상상을 현실로 일구고 있다. 박상원씨는 이렇듯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의 역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고 말한다. 송 시장도 이에 공감했다.

"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시작으로 파란 눈의 서양인들이 들어 온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화, 글로벌이라는 명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 후 운명적으로 공항이 들어서, 이제 그 어느 곳보다 글로벌한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졌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많게는 하루에 600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며 여객 12만 명이 오갑니다. 세계가 인천으로 통하고 인천역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도시건설보다 시민복지가 먼저

하늘 땅 바다를 품은 천혜의 자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등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품고 있는 인천. 그 힘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에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와 문화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박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장님이 워낙 에너지가 충만하기에 걱정은 안하지만, 인천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너무 큰 현안들이 있기에 혹시 복지와 문화가 두 번째로 밀리지는 않는지요. 시장님이 펼치는 인천의 복지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에 송 시장은 자신의 모토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제가 추진하는 3대 핵심사업은 3Care입니다. 즉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고(Child-Care),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Edu-Care), 일자리가 풍족한(Job-Care) 도시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에 힘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듯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송 시장은 '소통과 화합'의 철학을 앞세우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시민과 대화의 날을 열고, 현장순회를 하며, 시 홈페이지에 시정일기를 쓰고, 트위터를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는 박상원과 만나는 순간에도 트위터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했다. 박상원과의 대담 내용을 중계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그에 따른 시민의 반응을 전해 대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박상원씨를 사랑하는 팬, 특히 젊은이들의 비전과 열정을 자극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많이 도와주세요.

평등과 화합의 아시아경기대회 기대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격려의 말을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2014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박상원씨는 '내용이 있는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고 그에 있어 나름의 원칙도 있고요. 인생이라는 무대에 우리들 자신이 모두 캐스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원씨를 사랑하는 팬, 특히 젊은이들의 비전과 열정을 자극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많이 도와주세요."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인천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에너지가 충분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닌 평등과 화합을 지향하는 대회로 치르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된 인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뜨겁게 사는 두 남자. 그 열정과 패기, 오래도록 쌓아 온 연륜으로 세월이 갈 수록 더 큰 빛을 발하리라.

※ 본 기사는 지난해 11월 문화일보에서 발행하는 아침신문 'AM7'의 주선으로 이뤄진 대담을 취재한 것 입니다. 연평도 사태 등으로 인해 게재가 늦어졌음을 밝힙니다.

colorful Malaysia

말레이시아는 컬러풀하다. 자연도 인구도 종교도 형형색색이다. 다양한 컬러는 신비감을 자아내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매혹적이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을 뷰파인더에 담을 수 있다. 빌딩숲에 둘러싸여 있는 힌두교 사원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절에서 피우는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른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조화로운 공존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으로 인구의 60% 이상이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여러 종교를 축으로 각각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에 기반을 둔 계율을 따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은 중용(中庸)을 지킨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교적 삶과 사회활동을 고루 강조한다.

불교 인구가 주를 이루는 중국계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인도계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말레이시아만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한다. 이슬람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믿을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을 위한 모스크, 불교신도를 위한 절, 힌두교의 힌두사원 그리고 교회와 성당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 종교의 축제마다 타종교인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초대하여 즐기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라는 행사를 연다. 말레이시아 저변에는 이러한 특유의 성숙된 관용의 문화가 흐른다.

흙탕물의 합류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13세기까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식민 열강들이 향료가 풍부한 말라카에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침공 이후 네덜란드의 말라카 점령을 거쳐, 18세기 영국이 페낭을 점령하기까지 말레이시아 지역은 20세기 초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으며, 1963년 동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1965년 분리, 독립)를 포함한 현재의 말레이시아 연방을 성립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다. 현지어로 '흙탕물의 합류'라는 뜻이다. 말레이반도 서해안 중부의 산록지대에 있으며 켈랑강 어귀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다. 19세기 중엽까지 이 부근은 밀림에 뒤덮여 있었는데 근처의 주석광을 채굴하기 위하여 이주해 온 화교들이 1857년 강을 따라 작은 취락을 이룬 것이 시의 기원이다. 쿠알라룸푸르는 산지와 강가의 접점이라는 지리적 이점때문에 점차 발전하여 주변의 주석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셀랑고르주의 수도가 되었다가 다시 말레이연합주의 수도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인구가 10만 정도였으나 1957년 신흥 독립국의 수도로 지정된 후 급격히 발전하였다.

쿠알라룸푸르에는 1800년대 후반의 건물부터 현대양식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다. 대표적인 건물이 도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원래 경마장 부지였던 곳에 세워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이곳 센터에 있는 18개의 빌딩 중 최고층 빌딩이다. 1994년 공사를 시작해 1999년 8월 개관하였고 88층의 쌍둥이 빌딩이다. 우리나라의 삼성건설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한쪽 타워를 시공하였고, 다른 한쪽은 일본 회사가 시공하였다. 한국 컨소시엄은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하였지만 최종 완공은 6일을 앞섰다.

말레이시아가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한다는 비전2020 계획을 상징하는 이 건물은 41층과 42층에 걸쳐 두 빌딩 사이를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해 양쪽 건물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 외형은 언뜻 보면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만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했을 뿐이다. 지상부터 6층까지는 쿠알라룸푸르 최대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한쪽에 페트로나스 본사가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메르데카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의 국립 모스크는 독특하면서도 뛰어난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이 매우 인상적이다. 일반적인 양파 모양의 돔이 아니라 18각형의 별 모양 지붕이다. 언뜻 보면 우산을 여러 번 접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파란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73m 높이의 탑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약 8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이슬람교의 안식일인 금요일 오후에는 일제히 기도하러 가는 이슬람 교인들의 무리가 장관을 이룬다. 그때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임시 시장이 들어선다.

메르데카 광장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꼭 들러볼 곳이다. 1970년대 메르데카배 축구경기 대회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이 광장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를 상징하듯 광장 끝에 높이 100미터의 말레이시아 국기 게양대가 있다. 국왕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주말이면 시민들이 휴식처로 애용한다.

주변에는 햇볕을 받으면 우아하게 빛나는 구리로 만든 돔이 씌워진 영국 식민지 시대의 술탄압둘 사마드 빌딩과 40m 높이의 시계탑 등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이 즐비하다.

열대지역에 속하는 말레이시아의 기후는 연중 고온 다습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이 21~32℃로 연평균 강우량 2천~2천500mm, 평균 습도는 63~80%이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기온 차는 9~12℃ 전후로 낮에는 30℃를 웃돌다가도 저녁과 밤에는 매우 선선한 기후를 유지한다. 건기와 우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기라도 일시적인 열대성 소나기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상 국가원수(국왕)는 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을 뺀 9개 주의 통치자인 술탄(Sultan) 중에서 선출된다.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왕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와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통수권 등을 갖는다.

그 길에는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다

지금은 '송도'하면 당연히 송도국제도시를 생각한다.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흔히 송도유원지 일대를 뜻했다. 그 이전에는 송도역 부근을 일반적으로 송도라고 불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만큼 영역이 넓어진 '송도(松島)'라는 이름은 일제가 이 땅에 박아놓은 또 다른 쇠말뚝이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목마른 화차(火車) 물 한모금 마신 곳

구한말 옥련동 일대는 한진마을, 옥골, 독배, 대암 등 자연마을이 있었던 '원우이면(遠又爾面, 일명 먼우금)'이었다. 일제는 1936년 이 일대를 인천부에 편입하면서 일본식으로 '송도정(松島町)'이라 붙였다. 일본어 발음으로 '마쓰시마(松島)'는 일본인들이 즐겨 써 온 땅 이름이다. 일본 전역에는 크고 작은 '마쓰시마'가 부지기수로 있다.

1937년 수인선이 개통하면서 이 지역에 역이 하나 만들어졌다. 역명은 동네이름을 따서 '송도역'으로 붙였다. 수인선 협궤열차는 1979년 남인천역~송도역 간, 1992년에는 송도역~소래역 간 운행이 중지되었다. 철로가 폐쇄하면서 송도역도 문을 닫았다.

송도역은 그 기능을 다했지만 역사(驛舍)의 흔적은 가까스로 남아 있다. 시골 간이역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송도역은 현재 모 광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는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새 얼마 전에 슬레트 지붕에 천막을 씌웠다.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한갓 낡은 건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 역사는 자신이 옛날에 철도역이었음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역무원 사무실로 사용했던 방 외벽에 아직도 '송도'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수없이 칠해진 페인트 칠에도 감춰지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낡은 물건 하나가 철도 정거장의 흔적을 명확히 해준다. 송도역에서 학익동 쪽으로 30미터 가량 내려가면 녹슨 철탑 위에 커다란 철통이 놓여져 있다. 급수탑이다. 천리를 달려 온 화차가 목마름에 물 한모금 마셨던 곳이다. 증기기관차가 수인선을 달렸을 때 사용한 물통이니 족히 5, 60년은 된 물건이다. 비바람에 심하게 녹슨 급수탑이지만 주둥이에서 금방이라도 물을 쏟아낼 것 같은 모습이다.

그 옛날 송도역은 물물교환 장소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역전 공터에는 번잡한 장이 섰다. 소래, 군자 쪽에서 건너 온 촌로와 수인역 쪽에서 온 아낙네가 서로의 물건을 내놓고 흥정을 벌였다. 폐선이 되면서 이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에 송도역전 시장이라는 상설시장이 들어섰다.

시장 안 송도방앗간 이연수 사장이 과거의 이곳 풍경을 그려 줬다. "3, 40년 전 송도역 건너편에 수인선 양쪽에서 온 사람들로 늘 복잡했지. 각종 농산물을 비롯해 닭, 어류 등을 내놓은 좌판이 줄지어 있었어요. 수인선이 폐선되면서 장사꾼들의 발이 묶였고 급격히 위축된 거죠. 그 자리에 상가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 뒷쪽으로 현재 이 시장이 생긴겁니다." 송도역전시장 조차 이제 그 명맥을 잇기 쉽지 않은 듯하다. 상권이 위축되면서 40여 개의 가게만 장사를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번영회도 없어졌다. 시장 안 쪽으로 가면 송도초등학교가 있다. 1948년 학익국민학교의 분실로 개교한 학교다. 당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수인선 꼬마열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기름골이 된 옥골

수인선 옛 철로는 다 뜯겨져 나갔다. 그 기찻길 바로 옆으로 새로운 수인선 철로가 놓이고 있다. 노적산 산줄기가 끝나는 양지바른 곳에 옥골이란 오래된 동네가 있다. 바다 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오그라져 든' 마을이라 옥골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곳곳에 동네의 연륜을 대변해 주는 기와집 두어 채가 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고택들이다.

길에서 동네 어르신 이창렬(71)씨를 만났다. "우리가 덕수 이씨인데 고조할아버지께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매립되기 전까지는 마을 어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물 치고 갯벌 캐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늘 풍요로웠죠. 반농반어의 평화로운 부락이었는데 수인선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옛 모습을 볼 날도 얼마 안남았어요." 수인선은 옥골을 반으로 가른다. 기찻길에 길을 내주기 위해 동네 곳곳이 파헤쳐져 어지럽다. 재개발이 되면 전체가 엎어질 것이다.

옥골은 이미 아픔을 품고 있다. 기름으로 뒤범벅된 땅이 신음을 하고 있다. 50년대 초 시립사격장 인근 산 기슭에 미군 유류창이 자리잡았다. 수원비행장 등 수도권 일대 미군에게 기름을 공급키 위해 지름 30m의 대형 유류저장탱크 18기가 심어졌다. 인천항으로 유조선이 들어오면 현재의 SK저유소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곳 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했다. 이 과정서 파이프 이음새가 자주 터져 땅을 오염시킨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바다의 큰 얼음조각이 파도에 밀려 종종 파이프를 터트렸다.

기찻길 옆 사람들은 한동안 석유를 땔감으로 땠다. 기름이 새는 이음새에 깡통을 받쳐 기름을 받았다. 미군 병사들이 정기적으로 기차를 타고 순찰을 돌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파이프에서 철철 흘러나온 석유를 모두 깡통으로 받아낼 수는 없었다. 넘쳐난 기름은 땅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비가 오면 기름이 물과 함께 고였다. 물에 떠서 두껍게 말라버린 기름층을 회 뜨듯 양철로 벗겨서 그릇에 담았다. 이것은 훌륭한 땔감이었다. 왕겨에 버무려 때면 한줌의 겨로도 몇시간 거뜬히 불을 붙일 수 있었다. 남는 것은 몰래 내다 팔기도 했다. 기름탱크는 지난 1971년 미군 유류창이 포항으로 이전한 뒤에도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 유류저장탱크가 산에 박힌 이후 옥골에서는 그 누구도 우물을 파지 않았다.

홍어 삭힌 냄새 폴폴나는 조개고개

철로는 없어졌지만 기찻길은 아직 남아있다. 옥골 동네 앞에는 기다란 둔덕이 엎어져 있다. 이것이 철로가 놓였던 기찻길이다. 협궤열차가 다니던 외길답게 다리를 양쪽으로 뻗으면 닿을 만한 폭이다. 이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조개고개에 다다른다. 사람들이 홍어회골목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조개고개'라는 이름은 그 아랫편에 조개조합이 있었기 때문이고 '홍어회골목'은 홍탁, 홍어회 무침 등 홍어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화학이 바다를 매립하기 전까지 이 동네는 바다를 끼고 있던 동네다. 물끝 따라 나가서 반나절 만에 망태기 하나 가득 조개를 캐오던 곳이다. 갯일을 마치고 고개를 넘던 아낙들이 하나둘씩 흘리고 간 조개들로 길 위가 까맣게 보여 조개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조개가 풍부했던 곳이다.

예전만 못하지만 아직 이 골목에 들어서면 홍어 삭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도로 양편으로 충남홍어, 흑산도홍어, 할머니홍어 등 빛바랜 간판을 달고 있는 몇몇의 홍어집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이곳에 처음 홍어집이 들어선 것은 대략 40년 전쯤. 인천에 일자리를 얻은 아들을 따라 충남 대천에서 올라온 충남홍어의 김찬례 할머니가 식당을 내면서부터다. 당시 노적산 기슭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을 상대로 밥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간단하게 홍어무침을 반찬으로 내놓았다. 여기에 매콤한 맛을 진정시켜주는 조갯국을 함께 내놓았다. 단연 인기폭발. 뜻밖에 좋은 반응을 얻자 아예 홍어집으로 업종을 바꿔버렸다. 이후 입에서 입으로 홍어맛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주변에 하나둘씩 홍어회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흑산도 홍어집 사장 정이석(61)씨는 인하대 자리에 있던 피란민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이후 이곳에서 일생을 보낸 덕에 이곳의 산 증인이다.

"한때 줄서서 먹었어요. 자리가 없으면 그냥 마당에 자리 깔고 먹기도 했죠. 순전히 조갯국을 먹기 위해 홍어회를 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앞마당 나가듯 나가서 조개를 잡아오면 됐으니까… "

조개고개 건너편에 새인천풀장이 있었다. 동양화학에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잠시 운영했던 노천 풀장이다. 키 작은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 밖에 없던 뙤약볕 아래의 풀장이었지만 아쉬운대로 시민에게 인기 있었던 유원지였다. 이곳의 행락객들도 조개고개에 와서 허기를 달래곤 했다.

실미도대원 탈주 루트

수인선 철길 옆에는 송도역에서 조개고개를 잇는 오래된 길이 하나 있다. 세기자동차, 옥련여고 등이 접해 있는 약 400미터의 좁은 길이다. 이 길에는 비극의 역사 한페이지가 숨어 있다. 실미도대원 탈주 루트였다.

1971년 8월 23일 이른바 실미도 사건이 발생했다. 대원들은 새벽 6시30분 지나가던 6톤급 어선을 탈취해 실미도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육지에 닿은 곳은 옥련동 돌산 인근이었다. 몇몇 대원은 해수욕을 하며 놀기도 했다. 그들은 현재의 송도고 밑으로 돌아 나오다가 옥골고개에서 떡장수 할머니에게 떡 1천700원어치를 사먹고 2천원을 주고 갔다. 그들은 시내로 가던 항도교통 시내버스를 총으로 위협해 탈취해 승차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 6명과 버스기사, 여차장이 타고 있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와중에 옥련이발소 앞에서 놀던 김은희(당시 5세)가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송도 길을 벗어난 버스는 학익동~용현동~숭의로터리~제물포역~석바위를 거쳤다. 바퀴가 펑크나자 석바위에서 서울행 버스로 갈아타고 그들은 서울로 향했다. 그리곤 그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무한복지 무한행복
셋째아부터 무상보육

신묘년 우리시는 시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무한복지를 구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는 도시를 만든다. 올해 시민들의 생활에 알아 두면 좋은 주요 달라지는 사항을 소개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01 여성 · 가족 · 보육

●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3백만원 지원** 저출산 시대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 이후 출산자녀 또는 입양자녀에게 출산장려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구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출생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다. 출생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해야 된다.

● **무상보육 지원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를 실천하는 우리시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 4인가구 소득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4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대상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다. 지원단가는 만 0세 39만8천원, 만1세 34만9천원, 만2세 29만8천원, 만3세 19만8천원, 만4~5세 17만8천원. 무상보육 확대로 부모의 보육부담이 확 줄 것으로 보인다.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째아부터 완전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유아 보육비용을 전액지원한다. 지원단가는 정부지원 보육료 100%다.

02 경제 · 자동차 · 교통

●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25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창업기업 및 데스밸리(Death Valley) 상태의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조성으로 25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 2천5백억원의 신용을 창출한다. 자금지원 대상 및 규모는 창업자금 5백억원, 데스밸리 상태기업 2천억원이다.

●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청 및 인터넷에서 가능해진다. 종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등록관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변경, 이전 등 자동차 등록사무처리 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관청이나 인터넷 등록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 · 발급 수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는 무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600원이다.

03 교육 · 아동 · 청소년

● **인천 어린이과학관 개관**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이 올해 5월 개관한다.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사고능력 배양 및 꿈과 창의력을 키워 미래의 주역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양구 방축동에 건립되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다. 주요시설은 연령별 1~5군 전시시설, 기획전시실, 어린이도서관, 4D영상관, 강당, 옥상공연장, 야외편의시설이 들어선다.

● **취약청소년 상설 두드림존 운영** 가출이나, 집안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청소년 상설 두드림존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 경제체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돕는다. 대상은 만 15세~24세까지로 사업내용은 1단계 교육, 2단계 체험, 3단계 사회진출, 사후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인가형으로 전환해 정원, 학급, 교실수, 교사 등을 늘려 더욱 많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또 미인가 대안학교 1개교를 신설해 청소년 개별 특성에 맞도록 심리치료를 병행,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학습중심 형태로 운영한다.

●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확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조기에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

다. 올해는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이며 학부모부담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지원대상은 13만1천 65명으로 소요예산은 7백33억원이다. 시는 초1~2학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교 급식비는 계속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04 사회복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이 지원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차원이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은 20만원.

● **강화 장애인복지관 신축** 갈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한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화읍 관청리에 건립하며 올 11월 착공한다. 복지관이 건립되면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8개에서 9개소로 늘어난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금년부터 체험홈 퇴소자에게 자립때까지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한다. 자립생활주택은 1개소가 올 상반기 내에 건립되고 지원기준은 전세임대비 개소당 7천만원. 입주기준은 체험홈 퇴소자에 한하며 1인 1실을 입주원칙으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을 인상한다. 금년부터는 1인 43만6천44원(증 1만3천864원), 2인 74만2천453원(증 2만3천607원), 3인 96만475원(증 3만5천390원), 4인 1백17만8천496원(증 3만7천470원), 5인 1백39만6천518원(증 4만4천402원), 6인 1백61만4천540원(증 5만1천334원)이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지원** 중고교 입학 시 교복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수급자 자녀 3천3백명이 대상이다. 현금으로 지원하고 1인당 30만원씩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05 노인 · 장사

● **사랑의 안심폰 운영** 위험에 방치되기 쉬운 혼자사는 노인들 위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운영한다. 화상 모바일폰을 이용해 독거노인과 노인돌보미간 실시간 대화시스템을 구축,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노인돌보미 1인당 6~7명의 노인들을 시범적으로 돌보고,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 1천명에게 확대한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 부담금 지원** 고령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50%이고, 신청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은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여야 한다.

●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농사일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은 물론 외로움을 덜어주는 실버농장 운영을 확대한다. 남동구 수산동에서 운영하던 실버농장외에 연수구 선학동, 서구 경서동, 계양구 병방동 등에 실버농장이 설치되어 운영한다. 실버농장은 노인들의 일거리는 물론 건강한 노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06 보건 · 의료 분야

●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환자에게 간병인력을 지원한다. 이로써 보호자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영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으로 8실 44병상이다. 운영은 평일주간에는 자활센터 무료 간병인력을 활용하고, 평일야간 및 토 · 일요일, 공휴일은 유료 간병인력을 지원한다.

●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이제 영 · 유아 필수예방접종은 동네 소아과와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만3세이하 영유아로 국가필수예방접종 7종이다. 보건소에서는 전액이 무료이고, 의료기관에서는 백신비용 및 행위수가료 전액이 지원된다. 단 만4세~12세 이하 아동은 백신비용에 한 한다.

07 식품 · 위생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00인 미만 보육시설의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남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센터구성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8명으로 구성되며 센터당 80~100곳을 집중관리한다.
운영내용은 영양 · 위생관리 지원 및 식단개발, 영양위생 교육 자료 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위생관리, 순회방문 급식소별 맞춤형 지도교육이다.

● **세계 음식문화 박람회 개최** 인천지역 식품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대회가 열린다. 세계음식문화박람회는 올 9~10월 중 3일간 열리며 시민, 다문화가정, 외국관광객 등 약 13만명이 참가한다. 주요내용은 인천의 음식문화를 특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식품산업박람회와 어울리는 행사연출,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08 상수도

●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부과 제도 도입** 현행 하루만 늦어도 3% 부과하던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을 일할 부과한다. 연체금은 미납요금×3/100×연체일/월력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2011 신년음악회

2011년 신묘년을 맞아 1월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신년음악회는 경제수도로 발돋움 하는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재조명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특별 공연으로 펼쳐진다. 1부에서 금난새 예술감독이 이끄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정교하고도 섬세한 연주와 한국합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아름답고 정제된 합창을 선보인다. 또 이어지는 2부는 정수라, 조항조, 남궁옥분, BMK 등 흥겨운 대중가수의 히트곡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진다.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인천의 비전과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날을 아름답게 밝힐 이번 신년음악회가 멋진 새해의 시작을 도와줄 것이다.

일시 1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안숙선, 김덕수의 〈공감〉

국악계 최고의 명인이 한무대에 선다. 이 시대 최고의 소리와 사물의 만남이 이뤄진다. 〈공감〉은 국악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두 명인인 판소리 안숙선과 사물놀이 김덕수가 1956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첫 만남 이후 한자리에서 만나는 무대다.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구축해 온 서로의 음악세계 대한 공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각지를 누비며 우리 가락을 전파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우리 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 작업을 통해 국악의 발전에 힘써 온 두 명인의 이번 합동 무대는, 우리 음악사에 기록될만한 접하기 힘든 명(名)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1월 29일(토) 오후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문의 부평아트센터 500-2000

EBS 가족뮤지컬 〈뽀로로의 대모험〉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3D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대모험〉! 겨울시즌을 맞아 〈뽀로로의 대모험〉이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진다. 탄탄한 스토리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각색해 완성도 있는 뮤지컬로 탄생한 〈뽀로로의 대모험〉은 기존 뽀로로 시리즈와 달리 겨울마녀, 초콜릿 백작 등 악역이 등장해 선과 악의 스토리로 구성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2004 프랑스 공중파 채널 47%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달성하고, 2008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뽀로로의 대모험〉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1월 29일(토)~30일(일) 오전11시, 오후2시, 4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연극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는 신경숙 작가의 장편소설로 150만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2009년 문화계 '엄마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 바로 그 작품이다. 엄마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딸, 아들, 남편의 기억을 통해 무심코 지나쳐버린 엄마의 인생과 사랑을 추리소설 기법으로 하나씩 복원하여 가족의 내면 이야기를 절절하게 그려간다. 그리고 작품 곳곳에서 만나는 엄마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엄마를 떠올리게 하며 이기적인 이유로 엄마 혹은 아내를 필요로 했던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원죄를 깨닫게 한다.
지난 2010년 1월 연극으로 새롭게 선보인 〈엄마를 부탁해〉는 소설 속 감동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객석 점유율 90% 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소설의 명성을 이어갔던 연극 〈엄마를 부탁해〉가 2011년 인천 관객을 찾아온다.

일시 1월 22일(토) 오후3시, 7시 / 1월 23일(일) 오후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문의 공연마루 062)528-788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이달의 展 **1월 1일 ~ 1월 11일** 예술영재교육원 결과물 발표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월 13일 ~ 1월 19일** 음악과 미술의 향연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월 26일 ~ 2월 15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르네상스 학습자료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11 신년음악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엄마의 오페라단의 음악으로 떠나는 만나러 이웃나라**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전석 6천원, 회생 무료 ☎760-3455	15 **제11회 YMCA 앙리로제 어린이 오들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초대 ☎431-8161 - YMCA앙리로제 어린이오들단 - **송도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사계" AUTUMN&WINTER** 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816-7257 - 송도청소년교향악단 -
16 **소리빛 콘서트**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0-7680-8541 - 소리빛합창단 -	17	18 **창작뮤지컬 〈비보와 도깨비〉**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572-4281 - 사랑극단 꼬마세상 -	19 **창작뮤지컬 〈비보와 도깨비〉** 오전 11시, 오후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572-4281 - 사랑극단 꼬마세상 -	20	21 **뮤지컬 공주님의 달/동요나라 고무줄여행**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032)654-6654 - DJDEJ기획 -	22 **연극 (엄마를 부탁해)**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062)528-7880 - (주)공연마루 - **뮤지컬 공주님의 달/동요나라 고무줄여행**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032)654-6654 - DJDEJ기획 -
23 **연극 (엄마를 부탁해)**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062)528-7880 - (주)공연마루 - **뮤지컬 공주님의 달/동요나라 고무줄여행**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032)654-6654 - DJDEJ기획 - **시대별 음악기사리즈 11탄 '해설과 함께하는 고전음악'** 오후 5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전석 5천원 ☎010-6535-2904 - 어진내 청소년교향악단 -	24	25	26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전석 1만5천원(할인 1만원) ☎016-774-0014 - 사랑극단 '꼬마세상' -	27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전석 1만5천원(할인 1만원) ☎016-774-0014 - 사랑극단 '꼬마세상' -	28 **제7회 허모니키즈 허모니카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 ☎011-717-5494 - 한국허모니카이카데미 -	29 **EBS가족뮤지컬 '뽀로로의 대모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1566-6551 -청라이프- **불우이웃돕기자선음악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010-6553-3655 -인천순복음교회- **안숙선, 김덕수의 '공감'** 오후5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2만원, S석 2만5천원 ☎500-2000
30 **EBS가족뮤지컬 '뽀로로의 대모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1566-6551 - 청라이프 -	31					

단체장, 연극배우로 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문화나눔에 앞장 서

지난해 12월 26일, 아주 특별한 연극이 펼쳐졌다.
'연평도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나눔 연극'이라는 부제를 단 생텍쥐빼리의 소설 '어린왕자'의 연극에서 송영길 시장과 박우섭 남구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무대위 그들의 모습에서 어느 전문배우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졌고, 출연진들을 알아본 관객들은 뒤늦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천문화재단 후원으로 공연된 '어린 왕자'에서 송 시장은 임금 역할을 맡았고, 박우섭 구청장은 주정뱅이 · 뱀, 배진교 구청장은 사업가 · 장사꾼, 조택상 구청장은 점등인, 고남석 구청장은 지리학자 전철수, 홍미영 구청장은 여우 역할을 각각 맡아 열연했다. 또 탤런트 송옥숙씨와 '얼짱' 스포츠 스타로 유명한 인천출신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씨도 각각 장미꽃과 허영쟁이 역으로 특별 출연했다.
관객들은 시장과 구청장이 좀더 가깝게 느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뜻 깊은 시간이었던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공연의 수익금은 모두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연평도 주민 돕기에 쓰인다.

따스한 집에 살며, 땀 흘려 일하는 행복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인천시민은 모두 하나. 소외 받는 이웃 없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청년은 열심히 일하며 어르신은 공경 받는, 행복이 활짝 핀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너나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다. 우리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참여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복지예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하며, 자활참여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

열심히 일하며 희망의 끈을 잇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시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자활센터가 맡아 수행하는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는 차상위저소득층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 취업 · 창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복지를 지원하는 자활시범사업이다. 지난해 3월 인천자활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현재까지 시민 6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남현(가명, 42)씨는 안정된 직업을 찾던 중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씨는 컴퓨터학원에서 45일간 취업교육을 받은 후 자동차 힐을 생산하는 기업에 입사해 현재까지 구슬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또 희망키움통장으로 꿈을 새록새록 키우고 있다. 통장에는 매월 본인 불입액 10만원에 지원금이 붙어 3년간 월 98만원이 쌓이게 된다.

"전에는 '과연 내게도 기회가 올까. 내 가망성이 여기까지가 아닐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씨는 희망리본프로젝트로 자신감을 찾고 삶의 여유를 알았다며 환하게 웃었다. 또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리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저도 처음 이곳을 찾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희망리본 프로젝트

새 일자리 새 인생,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저소득층
내용 : 대상자 600명을 대상으로 기초상담부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근로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 서비스
신청기간 : 2월 28일까지
신청방법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면담 후 신청서 제출
문의 및 신청장소 : 주소지 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사랑으로 지은 '즐거운 나의 집'

사는 게 고단해도 '몸과 마음을 뉘일 내 작은 집만 있다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시는 집수리가 절실하지만 그마저도 여유치 않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건설관련 기업이 시공하고 여기에 시민 자원봉사가 힘을 더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1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차상위계층 등 2천84가구의 집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500가구에 깨끗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오래된 집들이 오밀조밀 서로를 기대어 서 있는 남구 용현5동. 이 작은 동네는 지난해 추석을 하루 앞두고 폭우가 쏟아져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다. 대부분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고 있어 고충은 더 했다.

송신자 할머니도 집에 물이 차고 빠져나간 후 벽지와 장판, 가재도구가 썩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사랑의 집고치기 자원봉사자들이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다.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리며 정성껏 살림살이를 손질하고 장판과 벽지를 새로 깨끗이 갈아 주었다.

"고마운 마음에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더니, 그저 편히 있으라고 하는 거야. 덕분에 힘 안들이고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됐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송 할머니는 숭의동에서 태어나 경상도에 살아가다 지난 2005년 인천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작지만 깨끗한 보금자리에서 다시 찾은 고향의 따스한 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따듯한 보금자리 만들기, 함께해요~

집수리 대상 :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참여 대상 : 기업, 자원봉사단체, 건설관련 각종 협회, 개인 등
내용 : 설계, 감독 등 집 고치기 관련 기술 무료제공 또는 직접 시공
집고치기에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 또는 구입비 지정기부
가구 및 가전제품 기부 또는 무상수리
신청 기간 : 상시
문의 및 신청 : 시 사회복지봉사과 자원봉사팀 440-2932
시 자원봉사센터 422-2464

6월까지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

우리시는 남구 도화동 인천대 옛 캠퍼스에 청년 창업자와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물포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남구 도화동 인천대 옛 본관 건물(1만2천㎡)에 스마트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주 대상으로 아이디어 개발과 보호, 자금·기술 매칭, 법인 설립,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창업에 성공한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창업보육센터(BI)와는 차별해 운영한다.
시는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창업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보육과정을 거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보육센터나 사업공간에 입주하게 도울 방침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 440-3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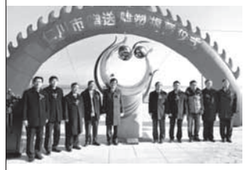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올해부터 인천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 3~6학년생 13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2학기부터는 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돼 총 1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은 472억원으로, 시가 142억원(30%), 교육청이 142억원(30%), 구·군이 188억원(40%)을 분담하게 된다.
시는 올해까지 현재의 예산 분담률을 유지하되 2013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 분담률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총 29만5천명에 이르는 인천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관리실 ☎ 440-2167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2014년 개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중구 잠진도와 무의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착수해 2014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정부 예산에 해당 교량의 설계용역비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및 융자 심사를 거쳐 추경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잠진도~무의도 연도교는 교량 0.8㎞와 접속도로 0.5㎞를 합쳐 총 연장 1.3㎞, 왕복 2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499억원(국비 249.5억, 시비 249.5억)으로 추산됐다.
인천경제청은 잠진도~무의도 연도교에 이어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인 용유도~잠진도 연도교는 곧 설립될 예정인 용유·무의복합도시 특수목적법인(SPC)과 적극 협의해 조기 건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의 : 자유구역청 ☎ 260-2015

中 단둥.옌타이시에 기념조형물 기증



우리시는 중국 단둥시와의 우호결연 15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9일 단둥시에 기념조형물을 기증하고, 현지에서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시가 단둥시에 기증한 조형물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화강석을 사용해 가로, 세로 3.4m, 높이 2.4 m 크기로 제작됐으며 양 도시의 구성원이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형상화했다. 시는 중국 내 다른 우호도시인 옌타이시에도 기념조형물을 기증하고, 10일 옌타이시 체육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인천에는 현재 중앙공원에 자매·우호도시인 중국 톈진, 다롄, 칭다오,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이퐁시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으며 월미도 이민사박물관과 시청에는 각각 미국 호놀룰루와 앵커리지시가 기증한 조형물이 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 440-3213

서해5도 지적측량 선진화 추진

우리시는 연평도 포격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국비 3억여 원을 긴급 지원받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대한 GPS 위성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500여 점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에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해5도는 일제시대 일본 도쿄 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공용 좌표계인 세계측지계를 도입, 서해5도 지적도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의 : 도시계획국 ☎ 440-457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볼링 포함 36종목 확정

4년 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종목이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아시안비치게임이 열리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협의를 거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식종목으로 볼링을 포함해 36개 정식종목을 공식 발표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28개 올림픽 종목에 볼링, 야구, 크리켓, 가라테, 카바디,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등 8개 종목이 추가돼 최종 36개 종목이 됐으며,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진 42개 종목 중에서는 한국의 메달밭인 인라인롤러와 체스(바둑·장기 포함), 당구, 소프트볼, 댄스스포츠, 드래곤보트가 탈락됐다. 또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2013년 실내아시아 경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 458-2171

백령도 119안전센터 문 열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서해5도 지역 내의 소방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 백령119안전센터가 이 지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서해5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인 백령도에 처음 문을 연 백령119안전센터는 인천 중부소방서 백령지역대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을 12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640㎡ 규모로 증축했다.
이곳에는 13명의 대원과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4대가 배치돼 백령.대청면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된 구급차는 자체 응급처치가 가능한 차량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백령·대청면의 각종 구급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백령119안전센터 개소를 시초로 연평도, 덕적도 등 나머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소방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소방안전본부 ☎870-3073

인천·서울·경기 "식품안전 공동으로 지킨다"

우리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식품안전관리 업무협력을 위한 수도권 시·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품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대형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고, 광역민원 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로 시·도민들의 불편 해소, 식품위해 사전 예방 등이다.
서울시와 우리시, 경기도는 앞으로 정기 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예정이다. 또 광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 개최, 업소의 지도점검, 실태조사등 업무 협조와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보건사회국 ☎ 440-2762

‘송도 애니메이션 파크’ 착공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기획, 배급, 전시, 상영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송도 애니메이션 파크’가 지난해 12월 2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착공한다.
오는 2012년 10월 준공 예정인 애니메이션 파크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 5천10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건축면적 2만7천㎡ 규모로 건립한다.
이 사업은 동우애니메이션㈜ 등 국내외 5개사가 공동 설립한 송도애니파크㈜가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애니메이션 파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복합영상 미디어 클러스터 구축의 첫 사업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에서 1천500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자유구역청 ☎ 453-7371

3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10개 군・구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 6만1천326명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시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시청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인천지역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7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접종 시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을 지원하고, 의사회는 무료접종사업 참여안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아기수첩(예방접종 기록 확인용)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 보건사회국 ☎ 440-2744

송도국제도시에 ‘지능형 교통체계’ 가동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단계적으로 구축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의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송도국제도시 1~4공구에 CCTV와 웹카메라 등을 추가로 설치, 전체적으로 CCTV 3대, 웹카메라 26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4대,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4대 등을 갖췄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노선별 버스 도착 예정시간과 실시간 뉴스,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교통정보센터와 송도국제도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도 주요 지점에 대한 교통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면을 통해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송도동사무소와 송도컨벤시아 등 네 곳에 설치했다. 문의 : 자유구역청 ☎ 453-7831

송도국제도시 첫 주유소 오는 6월 문 열어

주유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오는 6월 처음으로 주유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주유소 용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SK네트웍스를 최종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부지는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이 공원의 도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내 주유소 2호점 부지 매각이 내년 이후로 계획돼 있어 SK네트웍스가 예정대로 오는 6월 토지대금 완납과 동시에 주유소를 설치하면 일정기간 독점적인 상권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자유구역청 ☎ 453-7143

자원봉사 전국대회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우리시가 지난해 12월 3일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제5회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우수 자원봉사 행정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시는 대통령 1기관, 국무총리 1명, 행정안전부장관 개인 7명, 기업1개소 표창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우리시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원봉사를 육성 및 지원 등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우리시는 자원봉사자수가 53만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19%에 달하여 시민 5명 중 1명꼴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전국 대비 7~8%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활동실적 또한 전국 최고다.
문의 : 보건사회국 ☎ 440-3065

입주기업 현황 책자 발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입주기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 입주기업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FEZ 홍보투어'를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는 IFEZ는 입주기업들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IFEZ 입주 기업 현황'책자 3천부를 발간했다.
IFEZ 입주기업 현황 책자에는 송도 105, 영종 164, 청라 1개 등 IFEZ에 입주해 있는 총 270개 업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생산품, 종사자수 특허・수상・우수업체 선정경력 등 특기사항,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이 업체의 건물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특히 책자에는 개요, 잠재여건, 5대 경쟁력 등 IFEZ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투자유치 현황, 투자 절차와 인센티브 등이 실려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076

미용료・자장면 인천이 가장 비싸

국내 광역시・도 가운데 자장면과 짬뽕, 미용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우리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원(price.tgate.or.kr)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유통되는 10개 개인서비스요금 및 11개, 공공요금 정보를 지난해 11월 25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10개 개인서비스요금 중 가장 비싼 품목이 3개씩이나 되는 지역은 인천과 전남이었다. 인천은 자장면(1인분)이 전남과 함께 평균 4천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대구와 전북은 자장면 값이 평균 3천500원으로 가장 쌌다. 인천은 짬뽕(1인분)이 4천474원, 미용료(성인여자 커트)도 1만333원으로 광역단체 중 최고였다.

‘녹색경쟁력’부문 우수단체로 선정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부문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녹색성장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에서 우리시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2009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탄소포인트제 등) 시・군・구 참여 비율, 관용경차 보급률 등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6개 지표’ 부문에서 울산, 경기, 강원, 경남과 같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서 시행됐으며, 우리시는 우수사례로 ‘그린 스포츠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문의 : 정책기획관실 ☎ 440-2182

상임위원회 탐방① ‖ 의회운영위원회

시민과 소통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

신묘년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대 의회가 지난 6개월간의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한다.

운영위원회는 올 1년간 의회전체가 잘 운영되도록 의회일정을 조율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과, 사무처는 물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기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위를 가동함은 물론, 폐회 중이라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낮은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비록 회기일수는 140일에 불과하지만 상시근무체제를 갖춰, 시민과 만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운영,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청렴한 시의회상, 정치인상을 만들어 나간다.

의회시설물 개방도 더욱 확대한다. 작년 시의회 로비를 시민들에게 문호를 열어 호평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자료실, 회의실 등까지 개방해 회의실이 없어 곤란을 겪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이로써 시의회는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장으로 거듭난다. 학생 모의의회,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여대생 정치 인턴십 등도 확대해 정치 꿈나무 육성에도 힘을 모은다.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어 연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의회상을 만들어 간다.

운영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대시민 불편, 부당한 조례안은 폐지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신묘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우뚝 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 전원기 위원장

“모범적 의회상 정립, 메이킹 역할”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시민본위의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고 대변하여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메이킹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기 운영위원장(50, 서구1)은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 전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생동감 넘치는 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전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날로 높아지는 전문성에 대비, 시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보수집에 한발 앞서야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로 나갈 수 있기에 토론회, 공청회 등을 자주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를 경험삼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최대한 이끌겠습니다.”

전 위원장은 올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통정책을 펼쳐나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올 한해 인천의 새로운 도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어려움 극복에 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클릭! 시의원 ‖ 박순남 의원

“장애인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이 꿈”

손이 없는 1급 장애인 박순남 의원(60, 비례대표). 불의의 화상 사고로인해 양손을 잃었지만 박 의원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양손이 없는 장애를 불굴의 정신으로 극복, 이제는 성공한 여성경제인으로, 시의원으로 우뚝섰다.

장애인의 대표로서,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해 시의원으로 나선 박의원은 제6대의회 입성하자마자 장애인관련 권익을 위한 다양한 조례의 개정 활동에 나섰다.

장애인용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등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여성 성폭력문제를 제기, 장애여성을 위한 전담 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의 계기를 만들었다.

박 의원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데는 남다른 노력과 의지가 뒤따랐다. 19세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주변 친지들의 홀대를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용기있게 세상과 마주했다.

박 의원은 세상을 슬픔으로 비관하기보다 부딪치고 도전했다. 양손없는 장애의 몸으로 수의를 재단하고 바느질해 파는 일을 시작했다. 당시 박 의원이 만든 삼베수의는 솜씨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수의가 넉넉해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수의를 예약하고 기다릴 정도로 주문이 많았다. 수의로 시작한 일은 장의용품 제조사업으로 확장돼 1985년 장례용품 전문회사인 (주)은혜사를 설립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장애인으로 세상을 어렵게 개척해왔기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시의원으로 나서면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자신감과 자립심을 갖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박 의원은 장애인도 일하고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세워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를 실천할 공간을 만드는 꿈을 갖고 있다.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타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천을 복지 천국으로 만들어 타시도나 외국에서도 배워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장애인의 대변자로 나선 박순남 의원. 그녀로 인해 장애인복지가 활짝 꽃필 날을 기대해 본다.

시민의정 프로그램 체험 참가자 모집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의정을 추구하는 인천시의회의 힘찬 발걸음에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신)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아카데미의 일환인 시민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처음 개최된 본 과정에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여성위원회 회원 26명이 참여하여 스피치특강, 시의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체험 등 시민의정체험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처음 개최되어 참가자들은 의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추억을 갖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본 프로그램 참가신청 정도를 고려하여 매회당 30여 명 규모로 1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문서, 전화신청 등으로 접수받고 있다. 시의회 체험활동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의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체 접수를 희망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각자의 역할 부여와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문화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과정 학습으로 시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학생 모의의회 체험을 10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체험과정도 관내 학교의 참여율이 높고 학생, 학부모의 호응도가 좋다는 평가다. 올해는 상반기에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프로그램에 스피치 특강을 추가하여 13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전 열어

인천시의회는 1층 로비에서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전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개막된 전시회는 28일까지 13일간 전시되었고. 인천문화재단이 구입한 서양화, 한국화, 조소 등 예술작품 15점을 선보였다.
재단은 2005년부터 인천미술은행을 운영하며 인천 연고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불편, 부당한 조례 고친다

인천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수영(건설교통,남구4)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재용(산업,서구2)·안병배(건설교통,중구1) 의원을 각각 제1간사, 제2간사로 선출했다.
조례정비 특위는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 초래 및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정비 활동을 2011년 9월 15일까지 9개월간 하게 되며 정비대상조례는 425개로 특히 민생과 관련된 조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수영 의원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 특위 위원들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조례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유통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관련 간담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시의원, 시 관계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관련 간담회'를 지난해 12월 13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시 관련부서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간담회는 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 경제정책과장과 전국상인유권자연합,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인연합대형마트 규제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연평도 피폭사태 관련 특별대책회의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신)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11시 연평도 피폭사태와 관련 연평도 특별대책반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연평도 주민에 대한 정주여건의 조속한 조성과 초현대식 기반시설(교육, 대피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학교 중심의 안보교육이 필요성 등을 집행부와 의회, 주민 협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영종도에 있는 운남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평도 학생들의 교육시설과 식당 등을 둘러보았으며, 학교측의 의견 등도 청취하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의장 및 특별대책반 위원들이 연평도 피해현장을 찾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시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방향 공청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대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시의회 중앙홀 본관 1층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의원과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 시 기획관리실장과 시 교육청, 교육정책 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인천교육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와 교육청이 연계한 경쟁력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승남 교장(옥련여고 교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길 바라고 4년 후 일반화 및 학력향상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동수 전교조 정책실장은 "명칭의 변화로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학력의 양극화 초래 및 소수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선배정 문제 등 평준화 정책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으므로 소외되고 지원이 없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교육의원은 "명칭의 변화로 인한 기준안의 개편을 요구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박탈감이 문제"라며 "의견수렴 후 현실적,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정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관민 인천교총 교육정책위원은 "일정액수를 학교에 균등분배 후 기숙사를 제공하고 선정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원기 시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선정기준, 평가항목의 세분화 및 평가내용에 대한 투명성확보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2011년도 시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2011년도 시예산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3조9천515억9천504만원과 특별회계 2조6천121억2천72만3천원 등 모두 6조5천637억1천576만3천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시가 전달한 일반회계 3조9천515억9천504만원중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출된 140억7천730만5천원을 삭감한 규모다.

석유와 랑뿌

글 김윤식 시인 · 인천문인협회 회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석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을 밝힌 시초를 1880년이라고 기록한다. 다시 말해서 '김옥균(金玉均) 등 개화파 인사들과 가까웠던 한 말의 개화 승려 이동인(李東仁)이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램프 · 석유 · 성냥 같은 일본 제품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최초의 석유 도입을 1880년이라고 쓰고 있다. 석유와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 성냥에 관한 이야기도 보인다.

1880년 처음 석유사용

"석유는 영국 ·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다 가운데서 취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석탄에서 빼낸다고 하며 어떤 이는 돌을 삶아서 짜낸 것이라 하여 말들이 구구하다. 그러나 그것이 천연자원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경진년(1880년) 후에 비로소 석유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붉은색이 나고 냄새가 고약했으며 한 홉(合)이면 열흘 밤을 켤 수 있었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색깔이 점점 하얘지고 냄새도 점점 좋아졌으나 화력이 감소되어 1홉을 가지면 겨우 3, 4일밖에 불을 켜지 못했다. 석유가 나오면서부터 산이나 들판에 기름 짜는 열매는 번성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 연등(燃燈)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중략〉 양수화통(洋燧火筒)이 또한 석유를 같이하여 성행했으니 민간인들은 자기황(自起黃)이라 불렀다."

재미있는 대목이 '돌을 삶아서 째낸 것이라'는 말인데 아마 이 기름의 이름을 '石油'라고 표기하는 데서 그런 추측이 나돌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한 홉이면 열흘 밤을 켤 수 있었다.'는 구절로써 1880년대에 이미 석유가 등유(燈油)로 널리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끝부분의 '양수화통'은 '서양부싯돌'이란 말로서 '자기황'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문지르거나 무엇에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도록, 화약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만든 고체의 황' 곧 성냥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부산 지역은 이보다 훨씬 앞서 일본과의 물자 교류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인천에는 언제 석유와 램프가 들어왔을까.

아무런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인천에는 적어도 개항과 함께 일인이나 서양 무역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석유와 램프를 가지고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그것이 차츰 한국인 가정으로도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의 『개항 후의 인천 풍경』에 얼핏 이런 구절이 있다.

"야간 조명은 석유랑뿌(lamp)라고 부르는 석유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큰 거리에는 석유 보안등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석유 랑뿌가 한국 촌으로 들어와서는 석유남포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

아마 램프라는 발음이 서툴러 랑뿌라고 했었던 것 같다.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으로 우리 전통의 등잔과는 다르다.

미국계 타운센드상회가 독점취급

이 램프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잘못일 듯싶다. 선진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최초가 바로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조약으로 1882년이기 때문이다. 1850년 전후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극소량의 이런 개화 물품이 입수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정도일 뿐이다.

인천에서 석유를 취급한 무역상은 미국계 타운센드(Townsend 陀雪仙)상회로 1896년 인천 월미도에 약 50만 통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짓고, 1897년 3월에는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였다. 타운센드는 1900년 부산 절영도(絶影島)에도 석유 판매소를 짓기 위해 자국 영사 알렌을 동원하는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려 했다. 그러니까 이 무렵이면 조명용 석유가 거의 전국에 퍼졌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랑뿌' 역시도 전국에 보급되었을 것이다.

당시 석유는 사과궤짝 비슷하게 생긴 나무 상자에 담아 팔았다. 크기는 사과궤짝보다 다소 적은데 그 안에 석유가 든 깡통이 두 개 정도 들어 있었던 듯하다. 이 깡통은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고, 궤짝만은 "미국 뉴욕 솔표 석유"라는 한글 문구가 찍혀 있는 채 전해진다. 인천시립박물관과 차이나타운의 한국근대박물관에도 한 점이 보관되어 있다.

석유값은 1896년 6월 6일자 독립신문에서 볼 수 있는데 '석유 한 궤에 72냥'으로 '쌀 중품 한 되에 3냥, 서양목(西洋木) 중품 한 자에 2냥, 무명 중품 한 자에 1냥, 베 중품 한 자에 3냥, 소금 중품 한 섬에 35냥' 등 다른 주요 물가 시세에 비해 제법 고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이듬해부터는 '1궤에 14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포장 단위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1896년 기록에 오차가 있었던 것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 차이를 보인다.

아무튼 '돌을 삶아서 짜낸' 석유가 우리나라에, 인천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빛으로도 조금씩 개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석유와 랑뿌 이야기를 쓰면서, 어둠을 밝힐 수단을 가지지 못한 민족, 국가는 언제까지고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진리도 생각해 본다.

Tip

별난역사, 별난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석유등, 남포등의 자료와 실제모습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근대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3천원, 학생 2천원. **문의 764-1988**

The name will be remembered forever, Incheon

영원히 기억할 이름, 인천

글 피라스 알코파히(요르단, 아라베스크 운영)

대한민국의 서북부에 위치한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2001년 3월 건설된 세계를 향한 하늘길 인천국제공항과 대한민국의 수출입관문인 인천항이 위치하여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산업도시인 남동공단 가까이에 조성되어 한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인천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35㎞ 떨어져있다.

이러한 모든 장점 때문에 인천은 한국의 다른 도시들 중 그 가치가 높다. 또 중요한 문화적 자산도 많다. 차이나타운은 중국문화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장소다.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매혹적인 섬 월미도가 있다.

인천에서 10년을 살면서 도시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송도신도시는 발전의 바로미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송도에서 보았다. 갯벌이 빌딩숲으로 변한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송도의 발전을 보면서 한국의 힘을 느꼈다. 2009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였고 인천대교가 개통되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 외국문화(채드윅 인터내셔널, 병원, 문화센터 등), 기술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도시, 투자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인천을 조만간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올려놓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국제스포츠대회는 인천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하게 할 것이다.

새해 복이 소복소복

글 최원식(인하대학교 교수)

참으로 아슬아슬한 연말을 보냈다. 그래도 교훈적이었다. 연평도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누린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생생히 체감케 했기 때문이다.

1953년 휴전 이후 냉전은 한반도의 남과 북 사이에서 첨예했다. 반공웅변대회와 반공글짓기대회와 반공포스터그리기대회로 점철된 1950년대의 소년시절을 보낸 내 경험에 비추건대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노골적이었다. '북괴'를 비롯한 '중공'과 '쏘련'은 뿔 달린 붉은 도깨비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이미지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는 드문 평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바로 그 평화를 먹이로 일본은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부활하고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결국 중국도 개혁개방의 길로 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호황기에 북한을 괄호에 넣은 평화가 얼마나 사상누각(沙上樓閣)일 수 있는지를 깜빡 잊고 말았는데, 연평도 사태는 이 무서운 진실을 백일(白日) 아래 드러내었다.

진실의 벌거벗은 모습을 목격한 한국사회는 과연 어디로 얼굴을 돌릴 것인가? 물론 북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적 대응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치킨게임의 위험을 목격했기에 더욱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한층 강렬하게 대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남쪽이 형이요 누나다. 우리가 남쪽의 양극화를 걱정하듯 남북의 격차에도 공감적 눈길을 돌리는 그런 형과 누나의 마음을 지니고 북쪽과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아, 마음들아 모여라. 이런 마음들에 2011년 새해 복이 소복소복 내려 온 누리에 강물 같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만물은 천하다. 만물로써 사람을 보면 만물은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하늘로부터 보면 사람과 만물이 같다.(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위대한 실학자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83)의 철학소설 『의산문답(毉山問答)』(1766)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다. 조선의 학자 허자(虛子)와 의산에 숨어사는 실옹(實翁)의 대화체로 구성된 이 소설은 곳곳에서 이런 논리로 허자 곧 우리의 외통수 생각을 전복한다. 사람들은 저절로 사람 중심이 되어 물(物)을 천시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의 관점에 서본다. 이 자리에서는 거꾸로 사람이 천해진다. 그런데 작가는 다시 제3의 좌표를 마련한다. 사람과 물을 모두 상대화할 제3의 선택, 그것이 하늘이다. 하늘에서 보니 사람과 물이 평등하다. 이처럼 관점을 이동하는 훈련을 거듭하다보니 막힌 생각이 트인다. 생각이 막히면 인간이 옹졸해지고 생각이 트이면 정말로 사람 다운 멋진 인간이 탄생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담헌의 사유법으로 근사한 세상의 모체인 근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외과질환 물리치고 우리아이 튼튼하게

조 승 연
인천의료원장 외과전문의(소아외과)

소아의 외과적 질환은 어른의 질환과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몸에 이상을 보이면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소아의 흔한 외과적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탈장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탈장은 배꼽과 서혜부(두덩부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멍울로 나타나는 데 둘 다 선천적 원인으로 생긴다. 배꼽탈장은 대부분 출생 시부터 있는데 아기가 울거나 힘을 줄때마다 배꼽이 튀어나온다. 이는 대부분 돌 이전에 저절로 막혀 자연치유되므로 바로 수술할 필요는 없다. 돌이 지나도록 튀어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수술해도 지장이 없다.
서혜부탈장은 남녀 모두 생길 수 있는 데 성기 윗부분 두덩에 좌우 어디든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을 보이며 남아는 고환까지 붓기도 한다. 볼펜심 정도의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배 안에 있는 장(여아는 주로 난소)이 빠져나오는 상태여서 배꼽탈장과 달리 감돈(장끼임)의 위험이 아주 크다. 따라서 중한 타질환으로 전신마취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생아라도 일찍 수술을 해야 한다.

#항문주위농양과 소아치루 항문주위농양은 아기의 항문 주위에 고름집이 잡히는 질환으로 대부분 남아에게서 많으며 묽은 변을 보는 아이에 많이 생긴다. 이 병의 원인은 항문샘의 이상 감염으로 생각되며, 항문 주위에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절개배농을 시키는 등 치료해야 한다. 농양의 재발이 자주 있거나 항문 안에 치루가 분명한 경우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충수염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플 경우에는 급성 충수염을 의심해야 한다. 흔히 맹장염이라고 칭하는 이 질환은 대장의 초입에 붙은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체한 듯이 배가 아프다가 진행되면 오른쪽 아랫배가 집중적으로 아프며 특히 부위를 누를 때 심한 통증이 있다. 어느 연령이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표현이 부정확한 어린이는 초기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충수염은 기능성 장염, 감염성 장염, 장간막 림프절염 등 복통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어렵고 어른보다 빨리 진행되어 잘 터지며 복막염으로 급속히 진행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중첩증 1세 이전의 아기가 갑자기 보채고 배를 아파하면 장중첩증을 의심해야 한다. 장중첩증은 주로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에서 소장이 대장 안으로 말려 들어가 생기며, 2세 이상의 아이에게는 드문 병인데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어, 심하게 울다 조용하기를 반복하며 토하거나 혈변을 볼 수 있다. 빨리 진단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공기나 바륨관장술로 중첩된 장을 풀 수도 있다. 진단이 늦거나 관장술로 치료가 안 되면 수술이 필요하며 시기를 늦출 경우 중대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진단해야 한다.

#경부림프절염 아이의 양측 목을 따라 조그만 덩어리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 경부림프절염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데 90% 경우 감기균 같은 바이러스가 림프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비 특이적 림프절염이다. 이는 목옆에 경미한 통증이 있는 1cm 전후 크기의 멍울이 여러 개 만져지고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며 2~3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이 질환은 고름이 잡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 10% 이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결핵성림프절염이 흔하다. 때로는 림프암 등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한복에 핀 美, 세계를 사로잡다

한복에 곱게 새겨진 한국 고유한 아름다움이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와 (사)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2010 세계전통의상 자선갈라쇼가 지난해 12월 17일 3시간에 걸쳐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세계전통의상 자선갈라쇼는 세계를 대표하는 각국의 주한대사부부를 비롯한 외신기자단과 국내 언론 · 문화 관련 인사, 경제인 등을 초청, 전통한복과 궁중음식 등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는 국제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주재 30개국 외교사절 등 내외국인 100여 명이 전통한복을 입고 무대 위를 아름답게 물들였다.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대사 부부 및 외교사절 가족,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여성단체 회장 등은 함께 무대를 걸으며 세계가 하나라는 진리를 눈앞에서 펼쳐냈다. 유명인사들의 의상퍼레이드는 이어 진행한 전문모델의 갈라쇼와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한편 본 행사 식전에 열린 리셉션에서는 지역 경제인, 문화인, 주한 외교사절, 외신기자단 등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통 손자수 · 한복 · 전통소품 등이 전시되어 보는 이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한복패션쇼에 앞선 부대행사로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세 쌍의 무료 결혼식을 비롯해 공연, 합창 등 갖가지 화려한 축하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세계전통의상 자선갈라쇼는 매년 연말에 인천에서 열리는 자선의상쇼로, 우리나라의 전통과 세계 각국의 문화가 만나는 교류의 장이다. 특히 인천시장을 포함한 명사들이 모델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회를 총괄한 (사)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 김현실 회장은 "지난 2007년 첫 행사 후 올해로 이어지는 한류 전통문화 행사는 인천을 홍보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진정한 한류의 축제"라며 "한복을 입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사절"이라고 말했다.
세계전통의상 자선갈라쇼가 글로벌 도시 인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에 불을 지피길 기대한다.

연수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에서는 제36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 강좌기간 : 2010년 12월 22일(수) ~ 2011년 2월 26일(토) 3개월
- 접수기간 : 2010년 12월 20일(월) 10시부터(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yeonsu.or.kr(강좌신청 클릭)
  - ☞ 연수문화포털사이트 call.yeonsu.go.kr(연수문화원강좌 클릭)
  - 인터넷 접수 대행시간 (월~금) 10:00~17:00 (토) 10:00~12: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교육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직장인
- 교육내용 : 문화・교양, 미술공예, 창의탐구, 음악・전통예술, 직장인 저녁강좌
- 문의 : ☎ 821-6229

강좌명	대상	교육기간	요일	시간
귀엽고 깜찍한 토끼 캘린더 만들기 (클레이세상)	6세 이상	12월 27일~1월 17일	월	15:00-15:50
오물 조물딱 어린이 도자기	초등학생	12월 28일~1월 18일	화	14:00-14:50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 세계문화 유산이야기	2-6학년	12월 28일~1월 18일	화	15:00-15:50
삼국유사를 통해 배우는 우리역사-세 번째이야기	2-6학년	12월 28일~1월 18일	화	16:00-16:50
사고력 초등 교과 도형	2-3학년	12월 29일~1월 19일	수	13:00-13:50
	4-5학년	12월 29일~1월 19일	수	14:0-14:50
삐뚤 빼뚤 내가 만드는 책(북아트)	6-7세	12월 29일~1월 19일	수	15:00-15:50
책으로 표현는 나의 겨울방학이야기(북아트)	초등학생	12월 29일~1월 19일	수	14:00-14:50
생각이 보글보글~ 교과서 위인 독후일기 쓰기	1-3학년	12월 30일~1월 20일	목	13:00-13:50
뚝딱! 뚝딱! 만들며 배우는 입체학습 역사교실	1-2학년	12월 31일~1월 21일	금	13:00-13:50
	3-4학년	12월 31일~1월 21일	금	14:00-14:50
연극놀이와 함께 떠나는 겨울별자리 여행	1-3학년	12월 31일~1월 21일	금	14:00-14:50
자연 속 과학세상	1-3학년	12월 31일~1월 21일	금	16:00-17:00
생각과 느낌에 날개를 달자(그림일기)	6-7세	1월 8일~1월 29일	토	12:00-12:50

부모님을 위한 방학맞이 자녀상담

한신플러스케어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심리검사 치료전문기관이다. 방학을 맞아 우리 아이의 심리정서・발달 및 학습에 대한 부모님의 고민을 상담한다.

- 대상 : 심리・정서・발달 및 학습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사항
  - 우리 아이 발달이 궁금해요
  -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요
  - 말이 느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 우리아이 학습능력이 궁금해요 등
- 상담절차 : 유선상담 → 예약접수 → 상담 → 종결 또는 심리검사
- 기간 : 1월 3일 ~ 2월 28일(2개월)
- 비용 : 4만원 → 3만원(이벤트 할인)
- 주소 : 부평구 삼산동 461-4 미라쥬타워 5층
- 문의 : 1688-3551

추위를 날려버려! 겨울방학 특강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문의 : 772-2679

프로그램	일시	시간	대상	수강료	비 고
인물로 떠나는 역사여행	1월 4일~1월 25일	화15:00~15:50	초3~4	20,000	4회
떠나자 팔도여행	1월 4일~1월 25일	화 16:00~16:50	초3~4	20,000	
지구야 안녕?	1월 6일~1월 27일	목15:00~15:50	초4~6	20,000	4회 재료비 2,500
싸이언스 과학특강	1월 27일~2월 24일	목14:00~14:50	초1~3	20,000	4회 교재비 6,000

2011학년도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나홀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예비중1 ~ 중2
- 운영시간 : 월~금 16시~ 20시 20분
  2・4주 놀토 09시~14시
- 프로그램
  - 주중 : ・국어, 영어, 수학(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개발(독서, 숙제지도)
    ・창의체험활동 : 아트클레스, 논술, 두드림, 기타, 운동부 등 특기적성개발
  - 주말 : ・자원봉사활동(청소년인권, 환경캠페인),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 명사초청, 기관탐방)
    ・문화공연, 박물관, 농촌체험, 여름캠프, 스키캠프
-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및 개인재료비 본인부담)
- 문의 : 777~7942(내선4번), 010-2975-4458

겨울방학,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알차게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란다.

- 문의 : 762-7942, www.dreamyouth.kr

프로그램 소개	대상	활동일시	접수일시	참가비	비고
자원봉사프로그램 '나누는 사람들' 설 맞이 기념, 지역 내 소중한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주기	중・고등학생 20명	1월 26~27일 (13:00~16:00) 1일 3시간	12월 25일~ 1월 20일	무료	자원봉사시간 6시간 부여
8기 청소년기자단 기자작성교육 및 취재활동을 통해 청소년 신문을 발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중・고등학생 12명	1월~12월	1월~2월	무료	자원봉사시간 20시간 부여
8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운영되는 진정한 청소년 시설이 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우주선'를 모집합니다.	중・고등학생 12명	1월~12월	1월	무료	자원봉사시간 20시간 부여, 문화체험
7기 디카특공대 자신의 삶의 모습과 주변 환경을 디지털카메라로 표현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중・고등학생 10명	1월~12월	1월~2월	무료	자원봉사시간 20시간 부여
6기 레인보우 인형 제작 및 인형극 공연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중・고등학생 10명	1월~12월	1월~2월	무료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시간 부여
6기 붉은 도깨비 탁구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청소년 체육활동증진을 위한 탁구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중학생 10명	1월~12월	1월~2월	무료	탁구용품 일체 기관에서 제공
겨울학기 교육 아카데미 — 창의스타터	5~6세	1~2월	상시모집	40,000원	대여료: 6,000원
겨울학기 교육 아카데미 — 아동미술교실	5세~6세			48,000원	재료비: 21,000원
겨울학기 교육 아카데미 — 성인요가초급반	성인여성			10,000원	환급 안 됨
겨울학기 교육 아카데미 — 성인요가중급반	성인여성			10,000원	환급 안 됨

미추홀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도서관에 초대한다. 도서관에서 체험하고 놀고, 배우며 알찬 방학을 보내자.

- 기간 : 1월 3일(월) ~ 1월 28일(금)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 1・2, 평생교육실2
- 접수 : 전화, 방문(2층 평생학습팀), 인터넷(미추홀행사〉교육・문화프로그램〉어린이프로그램)
- 문의 : 440-6663

구분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인원 및 장소
초등 1~2 학년	그림책 속 만들기 여행	동화책을 읽고 북아트, 요리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하기	1월 5일(수) ~ 1월 26일(수) 오전10시~11시	20명 평생교육실2
	신문 속에서 만난 '우리'	우리나라를 빛낸 영웅, 문화유산, 전통놀이 등 우리의 신문 속에서 찾아 재미있는 활동하기	1월 4일(화) ~ 1월 25일(화) 오전10시~11시	20명 평생교육실2
초등 3~4 학년	교과서와 친한 나만의 책	교과내용과 연계한 나만의 책 만들기	1월 3일(월) ~ 1월 24일(월) 오전10시~11시	20명 평생교육실2
	독서교실	도서관에 놀러오세요!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교실 마련	1월 17일(월) ~ 1월 20일(목) 오전9시~12시 반	20명 세미나실1
초등 5~6 학년	경제와 친해져 볼까?	경제와 금융 개념 배우기, 친구들과 주식 발행・사업 정산 등 비즈니스 활동하기	1월 28일(금) 오전10시~12시	20명 세미나실1
	책, 지도로 그리자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마인드맵을 통해 독서 후 요약, 노트필기 방법, 창의적 글쓰기 배우기	1월 3일(월) ~ 1월 24일(월) 오전10시~11시	20명 세미나실2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

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에서는 올해부터 세 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개요
   -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징수통합의 기대효과
   -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통합 업무범위
   - 징수업무인 고지・수납・체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위탁업무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를 제외한 연금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
     - 고용・산재보험 위탁업무
4. 징수통합 업무 - 고지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합니다.
   - 고지 방식
     - 직장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가 하나의 봉투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하면 합산한 통합고지서 1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 : 세대주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봉투 한 장에, 그 밖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받게 됩니다.
5. 징수통합 업무 - 수납
   - 보험료 납부(수납)
     -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6. 징수통합 업무 - 체납

■ 보험료 체납민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ONE-STOP으로 4대 사회보험료체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7. 시행시기 : 1월 1일

■ 징수통합 서비스는 1월 1일부터 제공되며, 이를 위하여 징수업무 재설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재배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그리는 자화상 작품전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전인 '소묘과제전'이 열리고 있다.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느껴보자.

- 기간 : 2010년 12월 21일(화) ~ 2011년 1월 16일(일)
- 주제 : 꿈을 그리는 자화상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미추홀터
- 특징 : 작품 참가자들의 감성적인 부분과 심리적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대변할 수 있는 파스텔, 연필, 오일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 표현하여 평면의 드로잉 위에 팝아트적인 면이 돋보임.
- 문의 : 440-6643

가족사랑 음악회

인천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에서는 희망리본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음악회'가 열린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사업성과와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고 희망리본 참여 대상자와 일자리나눔을 실천한 기업 및 지역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 일시 : 1월 21일(금) 18시 30분~21시
- 장소 : 인천로얄호텔 그랜드볼룸
- 대상 : 대상자 및 가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약 3백명
- 문의 : 433-1785
- 행사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개회 및 시상식	18:20~18:30	○접수 안내	
	18:30~18:35	○사회자 인사 ○행사소개 및 개회선언	1부사회 : 인천시
	18:35~18:40	○개회사 및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18;40~18:45	○2010년희망리본 성과보고	전략실장
	18:45~18:50	○표창 : 우수취업성공자 ○감사패 수여 : 우수업체, 우수사회서비스 기관	
		○우수장학생 장학금 수여	본부장
	18:50~19:00	○ 우수성공사례발표	
2부 가족음악회 및 가족만찬	19:00~21:00	○가족만찬 ○초청연주 : 현악4중주 외3팀 ○자체공연 : 가족장기자랑, 직원합창	2부사회 : 희망리본 전략실장
	21:00~	○폐회	

동남권 신국제공항밀양유치 염원 정보검색대회

경상남도 밀양시청은 '동남권 신국제공항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연다. 기간은 1월 5일까지. 이벤트 정답자중 1천7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밀양얼음골사과와 밀양대추를 시 상품으로 배송한다.

- 기간 : 1월 5일
- 응모방법 : www.miryang.go.kr/02participation/event.php
- 문의 : 055-359-5619

아랍어 수강생 모집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아랍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랍어강좌를 연다. 모집인원은 반별 20명으로, 수강료는 무료다.

- 모집기간 : 1월 6일까지
- 신청방법 : www. talkhouse.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hyeran. suh@gmail.com
- 문의 : 451-1720

강좌명	교재	수업일	시 간	장 소	기 간
왕초보반 (오전반)	중학교 생활아랍어	화 · 금	9:30~11:00	아프리카관	1월 11일~6월 3일 (20주)
왕초보반 (저녁반)	중학교 생활아랍어	화 · 금	19:00~20:30	토크하우스 세미나실4	1월 11일~6월 3일 (20주)
초급반 (오전반)	고등학교 아랍어회화 1	화 · 금	11:00~12:30	아프리카관	1월 11일~6월 3일 (20주)
초급반 (오전반)	고등학교 아랍어회화1	화 · 금	20:30~22:00	아프리카관	1월 11일~6월 3일 (20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모집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는 생활공감 정책이 주부의 지혜와 에너지로 국민들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 · 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 · 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한다.

- 모집인원 : 1만명(시 · 도별 인원 안배)
- 자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20~50대 주부여성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국정과의 소통 및 정책형성 참여, 나눔 · 봉사활동 등
- 활동기간 : 2011년 2월 ~ 2013년 1월(2년)
- 모집기간 : 1월 20일(목)까지
- 지원방법 : oklife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작성(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발표 : 2011년 1월 31일(월) / oklife 및 happylife(생활공감 홈페이지), 시 · 도 및 시 · 군 · 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 : 02-2100-3815, 시 · 도 자치행정과, 시 · 군 · 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평생교육 단기특강 열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는 2011년도 평생교육 단기특강 교실을 운영한다.

- 운영기간 : 1월 10일~2월 18일(5주)
- 접수기간 : 1월 7일까지
- 이용료 : 무료
- 프로그램 신청 시 유의사항
  - 1인2강좌에 한함
  - 열린강좌 · 인문강좌 · 시민참여교육제외
    - · 열린교육강좌 : 노래교실, 시니어라이브
    - · 인문교양교육 : 명심보감,한국전통문화, 통과의례 교양강좌(아름다운 노년보내기)
- 수강생 유의사항
  - 회원등록 후 프로그램 참여가능
  - 타인 명의로 수강불가
  - 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 부담
- 문 의 : 457-5300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하여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이동상담 창구 운영
  - 장 소 : 인천종합터미널
  - 기 간 : 1월 ~ 12월
    매월 2회(둘째, 넷째주 화요일) 09:00 ~ 17:00

동서울방면 운행시간 변경

인천교통공사는 동서울방면의 운행시간을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은 참고바란다.

- 노선명 : 동서울
- 변경 운행시간
  - [14:00] [14:20] → [14:10](1회 감회), [22:00 막차] - (1회 증회)
  ※ 이외의 시간은 종전과 동일 함.
- 시행일 : 2010년 12월 9일부터
- 문의 : 경기고속 인천영업소 ☎ 422-6421

수원방면 운행시간 증회

인천교통공사는 수원방면 운행시간을 증회 운행하고 있다.

- 노선명 : 수원(광역) ※ 수원역 경유2. 운행시간
  - 종전 : [07:20] [10:35] [14:40] [18:35] - 1일 4회
  - 변경 : [06:40 증회] [07:20] [10:35] [14:40] [18:35]
  - 1일 5회 (1회 증회)
- 시행일 : 2010년 12월 9일부터
- 문의 : 경기고속 인천영업소 ☎ 422-6421

2011년 연중캠페인 "사람世上을 만듭니다. OBS"

OBS 시청 안내

OBS경인TV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아날로그 CH4, CH 21 / 디지털(HD) CH8

- 홈페이지 www.obs.co.kr , 스마트폰(iPhone) OBS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채널안내** 670-5500 , **뉴스제보** 670-5555

구 분	지 역(인천)	아날로그	디지털
케이블TV	남동구 · 서구 · 옹진군 · 동구 · 강화군 · 중구	3번	8번 / 13번
	계양구 · 부평구	15번	17번
	남구 · 연수구	17번	17번
스카이라이프HD	HD가입자에 한해 시청 가능	4번	

OBS Program

■ **독특한 연예뉴스 - 매주 월~금요일 밤 9:35-**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데일리 연예뉴스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타 방송사 연예정보 프로그램과는 달리 단독, 심층, 탐사 개념을 가미하여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OBS뉴스755 - 매일 저녁 7:55~**

OBS뉴스755는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된 뉴스를 선보인다.
특히 서울 중심의 뉴스를 탈피해 경인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여 1천4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 TEL. 670-5000 www.obs.co.kr

SPOT THE DIFFERENCE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사진은 강화평화전망대 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맞추어보세요. 틀린곳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화평화전망대 틀린그림 찾기

Mode

		1 10 인	천	국	제	디	자	인	페	어		
		천										
9 청		개		11 천								
라		항		도		2 12 광	제	호				13 급
3 달	동	네	박	물	관		저					동
튼			물				우					타
			관		4 동	북	아	트	레	이	드	타	워
		14 금					시					
		난			5 연	안	부	두				16 와
	6 잎	새	방	15 층			게					이
				영			임					번
7 녹	색	둘	레	길		8 잭	니	클	라	우	스	

12월호 퍼즐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하여 알립니다.

이미애 · 연수구 옥련동 **최용범** · 고양시 덕양구 **민소라** · 남구 학익동 **전재은** · 강화군 길상면
김종민 · 성남시 분당구 **박세희** · 남동구 고잔동 **박진현** · 계양구 계산동 **김은혜** · 남동구 만수6동
허정례 · 남동구 간석3동 **양선숙** · 남구 관교동

※ 가로열쇠 7번답은 강화나들길, 녹색둘레길 모두 정답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틀린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틀린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Reader's PHOTO

Congratulations

★ 장원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지금 막 운행을 마친 자동차 본넷에 열기가 남았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언몸을 녹입니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집 나오면 '개'고생입니다.
우제혁 · 연수구 연수2동

강화 나들길에서 삶에 한 점의 쉼표를

평소 강화나들길에 관심이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렌즈에 담은 강화도 풍경 가운데 멋진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강화도를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신 · 광명시 하안4동

아직 멀었나?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화덕 만두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줄이 쉽사리 줄지 않네요. 목을 쭉 빼고 쳐다보는 아이 엄마에게서 유명한 집의 명성이 느껴집니다. 결국 30여 분을 기다린 후 맛있게 먹었답니다.
임충성 · 남동구 서창동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도약

각자의 꿈을 향해 인일여고 친구들이 점프를 합니다. 더욱 높이뛰기 위한 힘찬 도약은 2011년에도 계속됩니다. 쭈욱~
최다영 · 중구 내동

30년 전, 그때 그 시절

아내가 아이들 목욕시키는 준비를 하면서 찍은 30년 전 아들, 딸의 사진입니다. 그토록 귀엽던 아이들은 이제 시집장가 가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박명선 · 서구 석남1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셋째아 이상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우리시가 시정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올해부터, 우선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정부보육료 단가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보육료단가 100%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라면 누구나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게 됐다. 사실상 우리시가 전면 무상보육 사업의 포문을 연다.

특히 소외계층이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해 국공립보육시설 지원단가 기준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시설 유형별로 단가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민간 가정시설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등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한편, 시설유형별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법정저소득층 영유아가 재원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완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출산 친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모들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모들의 가계부담 경감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지원 서비스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셋째아 무상보육과 별도로 2012년부터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계별 전면 무상보육 실시의 최초시행 연령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 중장기 보육 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무상보육 대상 연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

문의 : 인천시 여성정책과 440-2894

문패(門牌), 그 위에 쓰인 슬픔과 기쁨

문패는 집을 가졌다는 상징이자 증표였다. 문패를 달기 위해서는 대문이 있어야 하고 대문에 내 이름 석 자를 걸 수 있다는 것은 곧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집을 장만한 날, 아버지는 대문에 문패부터 달으시고 괜한 큰 기침을 하셨다.

문패는 각양각색이었다. 거친 판자에 조악한 솜씨로 직접 쓴 것, 좋은 나무를 사서 동네 명필에게 부탁한 후 니스 칠한 것, 돌에 이름을 새겨 넣은 것, 자개를 붙이거나 금박을 입힌 것 등.

언제부턴가는 문패에 부부이름을 같이 적어놓기도 했다. "쯧쯧, 마누라 이름을 써놓다니… 아마 이 인간은 처가살이를 하든지, 엄처시하에 살든지 할 꺼야". 부부금실에 대한 시샘일 것이다.

문패 덕분에 친구 아버지의 함자(銜字) 정도는 알고 지냈다. 이제는 앞집에 김씨가 사는지 이씨가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올 한해는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에 문패 하나씩 다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본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